

韓國의 儒敎哲學과 退溪先生의 地位 및 그 時代의 社會情勢

前 慶北大學校 講師 柳 奭 佑

I 韓國의 哲學, 儒・佛・仙三敎

韓國의 哲學은 儒・佛・仙 三敎에 依하여 各自으로 發展하였다고 볼 수 있는 反面 또 서로 影響을 미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中 儒敎의 그것은 退溪先生에 이르러 비로소 大成하였다고 이른다.

II 民族固有의 國仙道

그런데 이 儒佛仙 三敎는 다 中國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印度에서 일어나 中國을 거쳐 流入되었던 것으로서 이 外來三敎에 對하여 우리 固有의 國仙道는

「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敎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敎，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親，出則忠於國，習司寇之旨也，處無爲之地，行不言之敎，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衆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라고 羅末名儒 孤雲崔致遠은 말하였으나 여기 말한 仙史나 金大問의 지었다는 花郎世紀等 文獻이 오늘에 傳하지 않으며, 花郎道도 이미 行해지지 않은지 오래였으니, 三敎의 敎理를 包含하였다는 이 玄妙의 道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 名稱에 있어서 風流라 하였음은 우리말을 漢字로써 音譯한 것이겠고, 國仙이라 하였음은 中國의 仙道 卽 道敎에 對하여 우리 나라의 仙道란 뜻이었음과 함께 그 祭天의 儀式 및 三神(天神인 桓因・天과 人의 中間神인 桓雄・民族의 始祖인 檀君)을 비롯한 日月星辰河伯龍王等 宇宙間 모든 自

然現象을 神格化한 Pantheistic 인 點과 修鍊等 方法에 있어서 道教와 비슷하고 對照的이었음에 因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花郎이라 하였음은 新羅眞興王代에 이르러서 (風流道의 起源은 이때가 아니었고 遼遠한 古代였음) 美貌男子를 傅粉粧飾하여 그 各集團의 中心으로 한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겠는데, 그 代替하여진 까닭은 政治的인 理由와 外來敎 그 中에서도 儒佛兩敎의 隆盛에 因해 차차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Ⅲ. 道教와 그 哲學.

그런데 外來三敎中 儒佛二敎는 時代的으로 興替가 번갈아 있었으며 道教는 元來 中國人의 自尊心에서 外來敎인 佛敎에 對抗하기 爲하여 太乙天尊 즉 老子를 받들고 創設하였던 만큼 매우 國粹的이어서 外國에 傳布하기에 障礙가 되겠으며, 따라서 우리 民族性에 좀 不適하였음이었는지 敎勢는 떨치지 못하였으나 老子莊子의 말한 그 哲學理念은 上流識者層에 · 祈祝方法은 下流社會에 迷信的인 方法으로 浸透되어 내려왔던 것이었다. 그러면 道教入國의 始初는 高句麗榮留王七年(A. D. 624) 唐에서

「命道士以天尊像往，爲之講老子，王及國人聽之。」

한 것이 史上에 나타난 그 最初로서 그 다음 寶藏王二年(A. D. 943) 當時獨裁者인 淵蓋蘇文의

「三敎譬如鼎足，闕一不可，今儒釋並興，而道教未盛，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伏請遣使於唐，求道教以訓國人。」

한 主張으로 唐에 請하여 道德經과 道士八人이 오게되매 佛寺로써 道館으로 하고, 道士를 높여 儒士의 위에 앉혔다. 이에 對하여 三國遺事에서는

「麗季武德貞觀間，國人爭奉五斗米法，唐高祖聞之，遣道士，送天尊像，講道德經。」

이라 하여 榮留王七年 唐에서 보내어 오기 以前 벌써 道教에 對한 民間信仰이 일어났음을 보였으며, 또 蓋蘇文을 高句麗에 侵入하였다가 敗歸하였던 隋帝楊廣의 裨將인 (一說에는 右相이었다고도 함) 羊肱의 後身으로써 戰敗한 憤恨을 풀려고 死後 高句麗에 태어나 龍臣으로 되어 高句麗를 滅亡하도록 하겠다고 發誓를 하여 그 發誓한대로 되어 道教를 들여와 나라를 滅亡하게 하였다 하며, 道士들이 다니면서 國內有名한 山川에 鎮壓術을 하였고 新月形으로 되었던 古平壤城을 道士들이 南河龍에게 呪來功을 하여 滿月形으로 加築하여서 龍壤塔의 畝을 지었고, 또 靈石인 都帝岩을 鑿破하였고 또 長城의 役을 일으키 民力을 疲弊하게 하여 마침내 羅唐兵과 싸워서 亡하게 하였다고 인렸으며, 또 이때 盤龍寺

(李奎報의 景福寺記에는 盤龍山延福寺)에 住持하였던 普德和尚은 當局의 邪教를 일으켜 나라를 위태롭게 함을 여러번 諫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이에 方丈을 날려 完山州(今全州) 孤大山에 옮겼음이 지금 景福寺의 飛來方丈이었다고 일렀다. 그리고 또 高麗의 祐世僧統釋照도 이 飛來方丈의 普德聖師眞像에 禮參하고서

「可惜飛歷後，東明古國危。」

라고 옮겼다 하였으며, 또 李奎報의 全州高遠山(즉 孤大山) 景福寺飛來堂記에도 그 말을 하였다. 이로써 보아 道教의 輸入과 高句麗의 滅亡에 어떠한 聯關이 있었음을 高麗의 大覺國師나 李奎報나 一然의 時代에까지 一般的으로 믿어 내려온 듯하다. 생각건대 李唐에서는 老子를 그 始祖라 하여 玄元皇帝로 道諡하고 州郡에 玄元皇帝廟를 세우고 道教를 國敎처럼 尊崇하였으며 또 그들은 隋의 敗亡으로 그 自尊心을 傷害하였던 것이다.

「遼東本中國之地，隋氏四出師而不能得，朕今東征，欲爲中國，報子弟之讐。」

하여 唐帝 太宗李世民으로서는 잠결에도 능히 잊히지 못하였던 心情이었다. 또 그는 그 自身の 智力才能에 自信을 가졌던 것이었으니, 十八歲의 少年으로써 起兵하여 隋帝國을 뒤엎고 群雄을 芟除하여 國內을 統一하고, 다시 蒙古・新疆・越南 등의 外征에도 成功하여 安北・安西・安南의 三都護를 設置하였으나 오직 漢・魏以來 隋代에 이르기까지 抗爭을 繼續하여 오던 東方에만 힘을 펴지 못하였던 만큼, 그는 內政을 잘 整備하여 이른바 貞觀之治로써 國力을 培養하는 一面, 낮밤으로 高句麗의 틈을 엿보아 捕虜의 還付를 청한 것이나, 戰亡兵의 遺骨을 收埋하기로 請한 것이나, 高句麗의 세운 京觀(戰勝記念物)을 철도록 한 것이나, 그 使臣 陳大德으로 하여금 高句麗의 官吏를 買收하여 山川地勢를 周覽하고 被虜者들에게 그 親戚의 存歿을 알려 주면서 麗의 國情을 더듬는 것등 갖은 謀略을 써 왔던 이러한 情勢下에서 그들의 보내온 道士 등 또한 길으로는 傳道를 핑계하고, 속으로는 Spy였을 것은 想像에 남음이 있다. 그들이 國內山川에 다니면서 鎮壓術을 썼다느니, 滿山城으로 加築을 하였다느니, 靈石을 破壞하였다느니 한 것들은 다 軍事地理의 偵察 및 戰略의 地被物의 除去를 圖謀한 陰險한 手法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면 佛敎徒들의 主張한

「邪道匹正，國祚危矣。」

한 것이 그저 宗教的 軋轢에서 나왔는 말이 아니었는 듯하다. 이 같이 그 傳道가 唐의 征服道具로 利用하려던 目的에서 出發하였었고, 이 쪽에서는 그것이 反國家的 宗教로 본였던 가닭이었던지? 佛敎나 儒敎처럼 곧 잇달아 百濟・新羅에로 弘通되지 않았다가 新羅統一後 孝成王二年(A. D. 738) 唐使耶瑤가 孝子道德經을 王에게 올렸다 하였으나 道教

의 弘通되었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眞平王九年(A. D. 587) 大世 · 仇柒의 記事에

「若几骨可換，神仙可學，則飄然乘風於沈寥之表。」

한 말로 보아 이미 識者層에서는 相當히 神仙思想의 浸透되었음을 보인다. 統一期에 들어서 唐과의 文化交流가 盛하여짐에 따라 入唐學生中에는 道流로 된 金可紀 等도 있어 太平廣紀等 彼側文獻에 보이기도 하였으며, 崔孤雲 같은 이도 仙學으로 돌린 記錄이 있으며 위에 든 風流道를 말함에 있어서도 三教로 列擧하였음을 보아도 道教의 敎化的地位를 認定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그리 弘通되지 못하였음은 宋史에

「高麗王城，有佛寺七十，而無道觀，大觀中，朝廷遣道士往，乃立福源院，置羽流十餘輩。」

하여 또한 中國에서 道士를 보내어 왔음을 보이며, 「大觀中」즉 宋朝에서도 道教를 崇尚하여 道君皇帝로 인친은 徽宗의 때로서 이 宋史는 그 뒤 元朝末期 丞相 脫脫 等の 撰述한 것으로서 이 道教에 관한 記錄은 宋徽宗의 宣和五年 · 高麗仁宗元年(A. D. 1123) 宋使 路允迪一行中 徐兢의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의 記錄에 依한 것으로서

「高麗……其民非不知向慕長生久視之教，第中原前此，多事征討，無以清淨無爲之道化之者，唐朝之興，尊事混元始祖，故武德間，高麗遣使自詣，道士至彼，講五千文，開釋玄微。……大觀庚寅，天子眷彼遐方，願聞妙道，因遣信使，以羽流二人從行，選擇通達教法者，以訓導之，王俱篤於信仰，政和中，始立福源觀，以奉高眞道士十餘人。」

이로써 보면 大觀庚寅은 大觀四年 즉 高麗睿宗 5年(A. D. 1110)으로서 그해 宋使王襄 · 張邦昌一行에 道士들이 따라온 것일지며, 政和의 年號는 睿宗 6年에서 12년까지의 사이라. 즉 宋에서 보낸 道士를 위하여 곧 福源觀을 세워서 道教를 일으켜 보려고 한 것이었다.

「或聞王享國日，常有意授道家之箓，期以易胡教，其志未遂。」

하였다. 高麗朝에는 太祖가 契丹과 끊고 後晉과 聯合하여 契丹을 夾攻하려는 企圖까지 하였다 하며, 그 訓要中에도 禮樂文物을 唐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成宗以後 不得已 遼와 修交하게 되어 和戰이 無常하였으나 마음 속으로는 恒常 宋朝를 戀慕하여 文宗의 夢至汴京作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窟窟中華라 한탄 하였다. 그 간이 慕華心이 한창 高潮되었던 當時 睿宗은 더욱이 漢文學을 좋아하고 漢文化에 心醉하였던만큼 胡教인 佛教 대신 道教를 崇尚하려 하였다는 것도 있었을 듯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睿宗 혼자

지의 생각이었기나, 혹은 一部人士의 생각이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 記의 字字皆 實¹⁾의 말들로써 고아 一般高麗人의 머리 속에 그것이 反國家的宗教²⁾이었다는 생각이 가쳐져 않았는 듯하다. 그리므로 지편 記錄에는 그만큼 나왔음에도不拘하고 高麗의 記錄은 그리 詳細히 쓴 바 없고, 오직 그 以前부터도 太一에 醺祭를 乾德殿 같은 데에서 하였던 記錄은 종종 보였다. 福源觀을 이룩한 뒤로는 그런 祈醺의 行事を 거기서 專하였을 것이었으나 一般民間에는 弘通되지 못하였는 듯하다. 그것은 위에 말한 지편의 反國家的行動 뿐 아니라 隆隆한 佛敎의 壓力에도 있었을 것이었으며, 麗末鮮初로 려가면서 儒敎의 勃興에 因하여 道敎는 더욱 萎縮되었다. 그러나 宮中에는 昭格署라 王室專用的 齋醺의 機關이 있었으니 慵齋叢話에

「昭格署有三清殿。擎三清星辰醺祭。」

하였고, 또

「昭格署，皆憑中朝道家之事，太一殿祀七星諸宿，其像皆被髮女容也，三清殿祀玉皇上帝・太上洞淵諸君・普化天尊・梓潼諸君等十餘位，皆男子像也，其餘內外諸壇，設四海龍王・神將・冥府十王・八部諸神，題名位版者，無慮數百，獻官與署員，皆白衣烏巾致齋，以冠笏禮服行祭，祭饗諸果齋茶湯與酒，焚香百拜，道流頭道遙冠，身披斑斕黑衣，鳴磬二十四通，然後兩人讀道經，又書祝於青紙，而焚之，其所爲有同兒戲，而朝廷設官任職，虔奉祀祀。」

하였다. 이로써 高麗朝福源院의 行事도 짐작할 수 있겠다. 이것이 그 흐름이었을 것이었다. 松都誌에

「宮城北施，有昭格殿舊基，高麗亦有是官，而史失其傳歟。」

한 것과 高麗圖經의

「福源觀在王府之北，大和門內，建於政和間，前榜曰牧場之門，次榜曰福源之觀。」

한 두 記錄을 對照하면 「王府之北」한 것과 「宮城北施」한 것으로써 그 位置에 對하여 致하다. 그리고 그 稱號에 對하여서는 福源觀이 곧 昭格殿이었는지? 혹 처음은 福源觀이라 하였다가 高麗末期에 이르러 昭格殿으로 改稱하였음이었는지? 高麗圖經에는 그 本殿의 稱號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福源觀은 그 全體의 稱號있고, 昭格殿은 그 正殿의 稱號였는지? 또 혹 그 本殿은 朝鮮朝 昭格署의 本殿처럼 三清殿이었고, 그 總稱은 昭格殿 또는 福源觀의 두 가지 稱號를 가졌던 것이었는지? 未詳하다. 어쨌든 朝鮮朝로 되어서도 高麗朝의 본을 받아 宮中에 昭格署를 두어 祈醺을 行하도록 하였으나 儒敎徒로서는 慵齋의 말승처럼 「有同兒戲」라 하였을 뿐 아니라, 王室에서 國費를 넣어 그러한 濫祠를 爲한다 하여 中宗 13年(1518)士林派가 朝廷에 힘을 얻게 되자 大司憲趙光祖(靜庵)를 비롯

하여 伏閑固請하여 罷하였으나, 己卯士禍後 王大妃의 命으로 復設되었다. 이 같이 佛教와 마찬가지로 道家의 齋醮行事도 女性들의 支持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이었다. 그 뒤 宣祖 25年(A. D. 1592) 壬辰倭亂으로 破壞된 後 다시 復舊되지 못하였다. 그 때는 士林派의 朝廷이었던 까닭이라. 이 같이 道教는 高句麗末期・다시 新羅統一期・다시 高麗中期 三次的 傳播에 不拘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큰 發展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祈禱齋醮의 方法은 婦女層・下流層 民間社會에 感染되어 흔히 七星壇을 만들어 祈醮를 行하거나, 龍王풀이를 行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그 無爲自然・清淨寡慾・無方無常無窮無終始의 哲學觀은 知識層上流社會에 浸透되어 때로는 謹嚴한 儒學者 中에서도 그러한 傾向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時代環境이 그의 理念에 背馳되었을 때 그것을 悲觀한 나머지 消極적인 遁世消談等으로 一時的慰安을 求한 것으로서 그 例로는 世祖의 不義篡弑와 그에 따른 勳戚들의 不正腐敗를 矯正할 길이 없음을 보고 竹林七賢을 標榜하여 逍遙巾을 쓰고 消談을 하던 晉風 즉 老莊派의 傾向을 띄게 된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었는지며, 그리고 時局의 混亂하던 朝鮮朝末期 東學을 일으킨 崔濟愚의 唱道한 人乃天主張은 儒・佛・仙 三教의 教義를 統合하였다 한 點에서는 理念的으로

「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

이라 한 國仙道를 繼承하였는 듯하나 그 呪文念誦等 祈禱方式에 있어서는 道教的인 面이 極히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일어난 太乙教・普天教 등은 더욱이 그 傾向이 濃厚하다고 보겠다.

IV. 佛教의 興起.

道教的 信仰이 편치지 못한데 反하여 佛教는 入國當時부터 上下의 信仰이 極히 隆盛하였으나, 新羅만은 麗・濟와 달라서 異次頓의 殉教가 있는 뒤 비로소 그 弘通을 보였다. 이는 新羅人의 保守的인 性格에 因한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겠지마는, 新羅에서도 墨胡子 및 阿道の 傳道한 이야기 (墨胡子에 對하여 三國遺事에는 阿道の 別稱으로 보았지마는, 筆者는 이를 高句麗에 처음 傳道한 順道로 認定하여 『拙著, 慶州市志第八大節 佛教信仰條에 略說한 바 있음)와 三國遺事에 보인 「舛琴匣」 이야기들로 보아 法興王 15年(A. D. 528) 「雖有佛法」 하기 以前 벌써 民間信仰은 勿論이오, 宮中에까지 浸透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雖臣不信, 喋喋騰口舌」 하였음은 아마 惡德僧侶로 因한 「舛琴匣」의 不祥事가 있었던 까닭에 「相切」 즉 國民의 驚愕心에서 佛教에 對한 歸依心이 一時挫折되었던 까닭이었던가 한다. 그러나 布教가 公認되자 차차 信仰의 熱度가 더하여 麗・濟를 凌駕하

여 殺生의 禁斷・高僧의 來往・經律舍利의 輸入・寺殿塔像의 營造 그야말로

「寺寺星張，塔塔廝行，家家作禮，人人行道。」

의 盛況을 이루었으며, 임금 자신

「謝冕披被方袍，施宮殿爲寺謀，主持其寺(大王興輪寺)，躬任弘化，出家法雲，字法空。」

하였고,王妃도

「亦創永興寺，慕史氏之遺風，同王落彩爲尼，名妙法，亦住永興寺。」

하였다. 이는 三國遺事의 記錄에 依한 것으로서 法興王의 일이라 하였는데, 史記에는 眞興王의 일로 하여

「王幼年即位，一心奉佛，至末年，祝髮被僧衣，自號法雲，以終其身，王妃亦效之，爲尼住永興寺。」

하여 相違된 記錄을 하였으나, 遺事에 또

「眞興乃繼德重聖，承襲職處九五，威率百僚，號令畢備，因賜額大王興輪寺。」

하여 眞興自身 중으로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法興의 業績을 繼承擴張한 것으로 하였다. 어쨌든 新羅의 佛敎는 이 兩代王의 至極한 崇尚으로 旭日昇天의 勢로 일어났으며, 그 뒤 歷代諸王도 다 崇獎을 極히 하였다. 그러나 一般民衆에게까지 그 같이 넓게, 또 깊게 浸透되었음은 오로지 王室의 崇獎에 基因한 것만이 아니었고 佛敎나 佛敎徒 自體內에서 그렇게 大宗教로 發展興起할 要素가 지니져 있었다고 보겠다.

V. 愛國的인 佛敎.

7. 新羅의 佛敎界는 저 高句麗의 反國家的인 道敎나, 또 道敎崇獎에 對한 反感으로 移庵을 行한 普德, 또는 더욱이 獨裁者의 信任을 미끼로 賣國行爲를 한 信誠 같은 者를 낳은 高句麗佛敎界와는 아주 對照的으로 極히 愛國的이었으니, 처음 阿道가 佛敎를 일으키려는 目的으로 「大興佛敎，奉福邦家」를 내세웠고, 西學을 마치고 돌아온 圓光은 討兵하는 外交文을 지으라는 眞平王의 命令에

「求自存而滅他，非沙門之行也，貧道在大王之土地，食大王之水草，敢不唯命是從，乃述以聞。」

하였고,問道하는 貴山과 箒項에게 일러 주는 世俗五戒에도 「事君以忠」과 「臨戰無退」의 愛國訓 두 條目을 들어 같이 新羅青年의 指標을 끼쳤으며, 慈藏의 皇龍寺九層塔建造目的도

「隣國降伏，九夷來貢，王祚永安」에 있어 日本・中華・契越・靺鞨・丹國 등의 隣災를 다 鎮壓한다는 雄大한 抱負下에 決行하였으며, 義湘도 求法問道하던 中에서 唐帝의 東侵謀略을 歸報하고, 神印宗의 明朗은 禪兵의 四天王道場을 開設하는 등 愛國精神에 歸一하여 佛教徒의 이 傳統의精神은 高麗・朝鮮을 거치 日帝吞併時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救國活動 뿐 아니라, 一般民衆의 愛國心까지 鼓吹하게 되어 그에 따라 民衆의 歸依心을 북돋우었으며, 더욱이 朝鮮朝의 抑佛政策도 倭亂 및 胡亂中에 蹶起한 休靜・惟政・處英・靈圭・覺性・明照・應俊 等の 活動으로 自然緩和되지 않을 수 없었다.

VI 佛教와 在來信仰

나.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民族在來의 信仰 및 民俗과 佛教信仰을 잘 調和混融시켰음이니, 元來 우리 民族은 宇宙의 모든 自然現象에 다 그 말은 神이 있다고 믿는 Pantheism 的 생각으로서 天上을 主宰하는 桓因과 또 그들은 天降民族으로 自信하면서 하늘이 直接 人間을 낳지 못하는 만큼 天人의 中間神으로써 宇宙間의 모든 自然現象을 맡은 個個의 神 즉 風伯・雨師・主命・主穀 등 모든 神들을 總支配하는 桓雄과 또 桓雄의 아들로써 民族의 始祖인 檀君 이 三神을 비롯하여 山川의 神・바다를 맡은 龍神等을 섬기는 Ural・Altai 系民族들의 共通된 Shamanism 的 信仰에서 行하여졌던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濊의 舞天等 祭天大會에서 行하였던 興行을 新羅의 그 中期以後부터 八關會란 名稱으로 國家의 年中行事로 되었음이니,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人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한 高麗太祖의 訓要中에 있는 말이 그것으로서 八關이라 하였음은

「不殺生，不偷盜，不淫佚，不妄語，不飲酒，不坐高大床，不浴香華，不自樂觀聽。」

즉 이 八種の 惡業을 짓지 말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關閉하게 한다는

「關閉也，謂禁閉八罪，使不犯也。」

한 것이 그 뜻이라. 다시 말하면 佛教의 八成을 祭天大會에서 行하는 歌舞戲樂에 假面劇으로써 興行하게 하였던 것이다. 筆者의 目睹한 바로 故鄉인 安東河回에서 最近世까지 行하여 내려왔던 (日帝治下 그들의 壓力에 依하여 中斷되었으며 近年 그 탈을 또 서울로 옮겨 갔다 함) 別神宮(朝鮮朝에 와서 이름을 그렇게 불리워졌음)이라는 年中行事에서 반듯이 먼저 洞里的 가장 위에 있었던 三神堂에 行祭한 다음 내려와 선왕당(城隍堂

의 音變이니 즉 그 地域山川의 柵을 받드는 곳)에 또 行祭를 하고, 그 다음 곳 즉 탈놀이
가 舉行되어 여러 날에 미쳤는데, 그 탈의 名稱에도 락달이탈·이매탈·초란이탈·양반
탈·중탈 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興行中 殺生·偷盜·淫佚·妄語·飲酒·倨慢·侈慾
等事를 實演으로 警戒規諷하는 場面이 觀衆의 興味를 돋구면서 잇달아 나왔던 이것이
바로 그 옛날 八關會의 흐름이었을 것이었다. 이 八關會의 始創은 新羅眞興王十二年
(A. D. 551) 高句麗를 쳐서 國土를 크게 擴張하였던 居柒夫將軍을 따라 高句麗에서 新羅
로 돌아온 惠亮法師에 依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居柒夫傳에

「於是，居柒夫同載以歸，見之於王，王以爲僧統，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한 것이 그것이라. 惠亮은 居柒夫의 軍前에 나타나서 그가 高句麗를 버리고 新羅에 돌
아오려 한 動機를

「今我國政亂，滅亡無日，願致之貴城.」

하였으니, 그 뒤 寶臧王時

「人或言，於馬嶺上見神人曰，汝君臣奢侈無度，敗亡無日.」

한 것과 같이 高句麗末期 政治紊亂相을 보임이라 하겠 으며, 저 普德의 移庵과 같이 政治
的 理由로 名僧大德을 잃은 宗教的衰頹도 想像할 수 있다 그러나 惠亮의 때는 高句麗
의 亡하기 百數十年前인 陽原王時로서 道教도 아직 들어오기 前이었으니 宗教的軋轢은
있었을 理 없었음이 勿論이오, 政治面에서도 그 뒤 隋寇를 擊滅한 嬰陽王時도 있었으나,
그 때 벌써 滅亡無日이라 하였음은 맞지 않은 듯하다. 혹 一時中衰하였다가 嬰陽王時
다시 振作되었음이었는지? 혹 隋寇擊滅은 高句麗兵의 勇壯한 傳統과 乙支大臣의 神妙
한 戰術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貴族社會에서는 이미 腐敗菌이 潛在적으로 울
트기 시작하였음이었는지? 어쨌든 惠亮을 잃었음은 高句麗의 一大損失이었음과 함께 新
羅로서는 居柒夫將軍의 竹嶺以北 高峴以南十餘郡의 땅을 獲得한 것에 匹敵한 만한 大收
獲이었다. 佛敎에 있어서도 이때 新羅에서는 아직 艸創期에 있어서 梁에서 겨우 佛舍利
를 보내어 왔을 뿐이었고, 經論도 未備하였 으며, 求法僧도 尙德이 돌아왔을 뿐이었고, 明
觀·安弘·圓光·曇育·智明等은 아직 入學의 前에 오르지도 않았던 터라, 첫 僧統으로
된 惠亮의 開創한 百高座講會에 依하여 佛敎徒自體의 敎養에 큰 成果를 거두었을 것은
無論이었으려니와, 이 八關法에 依하여 原始信仰에서 내려왔던 祭天大會도 그 精神的面
에서는 佛敎로 改粧하게 되어 그에 따라 神名과 佛名을 融合配定되었으니 그 例로 桓因
을 帝釋天으로 하였음과 같은이미, 또 後日 高麗妙清의 林原宮城의 八聖堂에 奉安된 麗

國白頭嶽太白仙人實德文殊師利菩薩・龍岡嶽六通尊者實德釋迦佛・月城嶽天仙實德大辨天神 等々の 八聖稱號도 新羅以來 漸次세로 神佛一致觀念에서 굳어진 것이었음지며, 神前에 바쳤던 歌舞音曲이었던 鄉歌도 僧侶들이 能히 한 例로서 融天師・忠談師・月明師들도 있었으며 따라서 鄉歌로서 神明을 感動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으며, 또 眞慈師 같은 者는 彌勒佛이 花郎으로 現化하기를 祈願하였다고 하며, 僧名道玉이 郎徒名驛徒하였음과 같이 佛敎徒와 花郎徒도 混融一致되기도 하여, 枯淡固滯한 佛敎가 아니고, 神佛一致・郎佛一體의 形態가 新羅의 國運隆昌에 도움이 됨과 함께 佛敎弘通에 크게 寄與하였음도 말할 나위가 없었다.

VII. 平等主義의 佛敎.

ㄷ. 그리고 또 大衆의 心琴을 깊이 울려 歸依熱을 올리게 한 것은 그 平等理念이었다. 元來 佛敎는 婆羅門敎를 改革한 宗教로서 波羅門의 酷甚한 階級差等에 反하여 徹底한 平等을 主張하여, 生命을 가진 모든 動物에 對하여 다 같이 慈悲心을 가져야 하며, 또 다 見性成佛할 수 있다는 理念이라. 따라서 一切平等을 主張한다. 그런데 從來 新羅에서는 嚴格한 骨品制社會로서 官職・家屋・車服에까지 嚴格히 制限區分되어 있었으며, 婚姻도 뼈가 다르면 못하게 되었으며, 가령 第二骨의 女가 第一骨의 男에게 시집간다면 妾媵의 地位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날은 子女들도 格이 낮아지게 마련이었는데, 佛敎信奉에 因해 官賤 즉 임금의 親族이나, 宰相의 嬖이나, 逆臣의 後屬(옛 制度로 逆賊의 親屬은 죽임을 免하더라도 官私奴婢에 充當하였던 것이었다.)이나 다 같이 寺隸로 奉仕하게 되었으며, 公子王孫이나, 僧孺의 아들이나, 卒伍나, 賤婢나 能히 念佛成道만 하면 尊敬을 받고 向慕를 얻게 되니, 이런 일이 그들 下流社會에서는 아주 鼓舞의이었던 것이었다.

VIII. 佛敎와 學問.

ㄴ. 그리고 또한 더욱이 當時 佛敎僧侶들은 가장 높은 知識層 指導級에 屬하였으니, 當時社會一般에서는 겨우 南倭와 北의 靺鞨・西方大陸의 中國이 있음을 아는데 不過하나 僧侶들은 멀리 五天竺을 둘러서 中國까지 돌아오기도 하며, 적어도 南北中國을 巡禮하며, 때로는 天竺僧이 오기도 하여 그 周圍의 나라들과 民族・風土・信仰들을 紹介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中國이나 天竺에서 미물리 돌아오지 않는 이도 많아, 그 中에는 唐에서 玄宗의 師僧으로 된 無相・肅宗의 師僧으로 된 無漏 같은 이도 있었으며, 歸國하여서는 의례히 王師나 國師나 僧統・大禪師・法師 따위의 地位에 올라 王室・貴族 및 大衆

의 敬慕의 對象으로 되었는데, 더욱이 智的인 면에서 地理的知識과 佛敎의 敎理 뿐만 아니라, 文學・藝術・技工等 文化面에 貢獻이 莫大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佛敎哲學은 波羅門哲學에서 나왔던 것으로서, 이 Brahmanism은 近世獨逸의 大哲學者인 Kant의 感歎攝取한 바로서 매우 深奧廣汎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研究修整한 Buddhism은 그 幅과 深度가 더하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이 中國을 기치면서 浸譯됨과 함께 더욱 敷衍된 疏論들도 많아졌다. 新羅에 들어온 佛敎는 그 初期에서 盛衰에 이르기까지 系統化 組織化하여 綱理와 戒律에 注力하였던 만큼 律宗의 成立으로 보겠고, 普德은 高句麗에서 涅槃經講으로 有名하였으니 그와 같이 온 여러 弟子들에 의하여 涅槃宗이 成立되었을 터요, 統一期로 옮으면서 元曉・義湘 및 眞表・智旭等 義湘의 帶弟子에 의하여 華嚴宗의 金盛을 보여 元曉의 金剛三昧論 등 論疏는 國外로도 流布되었으니, 瑜伽宗의 祖師大賢에 이르러서는

「慧辯精敏，決擇了然，大抵相宗銓尾，皆理幽深，難爲剖析，中國名士白居易，嘗窮之未能，乃曰，唯識幽難破，因明劈不開，是以學者難承襲古高矣，賢獨判定邪謬，暫開兩奧，恢恢遊處，東國後進，咸遵其訓，中華學士，往往得此爲眼目。」

즉 佛經中 가장 어렵다는 唯識論・因明論에 대한 그의 論疏가 中國으로 逆輸出되어 그 學者들을 깨우쳤다는 것이었으니, 그에 앞서 同宗의 順璟도 그 法相大乘의 敎에 대한 論著가 또한 中國에 傳하여졌으며, 同門의 圓測은 毘曇・成實・俱舍等論을 비롯하여

「古今章疏，無不通曉。」

라 하여 唯識論疏・解深密經疏・仁王經疏 및 般若心經・無量義經等疏의 著述과 密嚴經・大乘璣等經의 翻經證義를 하여 彼土에 流布되고, 그것이 다시 彼土에서 本國인 우리 땅에 流入하게 되었으니, 모든 經論中 가장 어려우며 眞如修行的 推心哲學 論理學的인 唯識論・因明論 등을 주로 한 法相宗의 盛況은 이루었으니, 우리 民族 頭腦의 明哲하였음이 이로써도 立證된다. 그러나

「圓測法師，是海東高德，以牟梁里人故，不授僧職。」

즉 益立 한 사람의 잘못으로써

「勅牟梁里人從官者，並令黜退，更不授公署，不著黑衣，若爲僧者，不合入并鼓寺中。」

이러니 이러한 高德을 미리 材材器器을 이룩한 하여 彼土에 佛敎가 퍼부르게 되었으니, 우리 나라 사람의 狹量함과 政治的理由로 人材를 잃었음이 어찌 限이 있었으며, 또 國內에서 이간 謗述이나 業績을 남겼더라도 自己飭戒로 己에 자라지 않았음을 보인 어찌 限

이 있었으랴? 실로 慨歎한 바라. 그런데 智異山華嚴寺事蹟中 崔致遠所撰의 故翻經證義 大德圓測和尚忌辰祭文에

「吾君慕法，累表請還，聖帝垂情，優詔願拒.」

하였으니 아마 彼土에서 그의 聲望이 크게 높아지자 新羅에서 還國시키도록 唐帝에게 要請하였으나 唐帝가 婉曲히 拒絶하여 還國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統一後기로 되면서 禪宗이 盛하게 되어 그 哲學觀도 深度를 더하였으니, 즉 迦智山派의 元祖인 道義·實相山의 洪陟·桐裏山의 惠哲·聖住山의 無染等 九山禪門이 서로 前後하여 蔚興하였으나 華嚴도 依然히 興했으며, 眞宗·神印宗 等 各派가 다 일어났다.

IX 高麗朝의 佛教

麗朝로 되면서 太祖는 그 祖母(追諡元昌王后)와 父(追諡世祖 王隆)가 다 了悟禪師順之에게 歸依하였다 하며, 自身도 道諷師에게 가르침을 입었다 한 만큼 그의 訓要中에도

「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

하였고, 비록 道諷所占外 寺刹을 더 일으키지 못하도록 制限措置도 取하였으나 지나친 崇佛政策下 그 制限이 지켜지지 못하였으며, 歷代諸王은 중은 國師·王師로 하였고, 王子들을 出家시켰는데 出家한 王子中 가장 有名한 釋煦(大覺, 義天)로 인하여 天台宗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佛教界의 天台教觀이 이때에 始興함이 아니었고, 中國에서 智者의 開宗에 앞서서 우리는 저 먼리 新羅眞興王代 玄光이 이미 思和尚의 單傳을 받아 法華三昧를 證成하여 唐의 慧旻에게 傳하였으며, 그 뒤 義通과 諦觀이 彼土人의 固請으로 도리어 그리로 건너가 傳法을 하고 돌아오지 못해 이쪽에서는 法統이 끊어져, 祐世로 하여금 發憤하여 慈辯講下로 단리가게 하여 그 以後 다시 東土에 全盛을 이루게 되어 刊經業도 크게 일어났으며, 三十年蒙亂으로 破壞도 많았으나 教勢는 依然하여 元代의 湛堂처럼 도루 彼土의 名釋이 東來하여 天台의 遺書를 求한 例도 있었으며, 이처럼 台宗이 一世를 風靡하던 中에서도 禪宗은 이어 받히 兩宗이 迭興하였으며, 麗元의 關係가 密接하여지자 元朝의 皇室·貴戚 또는 緇林의 要請으로 冲止等 여러 名釋이 彼土에 가서 傳授한 이도 많고, 羅代의 佛法初輸入時에 비하여 彼我關係가 뒤미전 듯한 感도 있었던 만큼 그 盛況을 想像한단 하다.

X 朝鮮朝의 佛敎

鮮朝의 抑佛政策으로 말미암아 佛敎는 山間에 움츠러 들어 道教처럼 衰亡感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禪定修研에는 도움이 되어 高僧名僧이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民心 特히 婦女層에 깊이 뿌리박히 歷代君王도 마음속으로 歸依한 이가 많았으며, 더욱이 宮中の 妃嬪들은 대개 篤信하는데, 特히 文定后・仁顯后・明成后들은 더하였으니, 이 時代의 佛敎는 政策的으로 禪・敎 兩宗에 大別되었으나, 주로 麗末名僧 普愚와 懶翁의 衣鉢을 傳해 내려온 臨濟 曹溪의 禪派가 더욱 번졌으며, 壬辰・丙子의 兩大亂에 寺刹經像의 破壞도 많았으나, 僧侶의 國難에 溫存한 이도 上述한 바 影響이 적지 않았는데, 依然히 普愚・懶翁의 嫡統인 浮休・休靜의 後繼者로 그 末期 乃至現世까지 내려왔으나, 草嚴의 碩學도 종종 일어났다. 다만 中國・印度와의 往來交流가 막히 옛날처럼 生動潑刺하지 못한 感이 있었다. 假令 있었더라도 지족도 나 衰頹하여졌고 印度는 더욱 사그러졌으니 所得이 있었을理 없다.

X I 三敎의 哲學과 相互關係

要컨대 佛敎는 道教보다 盛하였던 만큼 그 民心에의 感化는 더욱 컸으며, 그 哲學觀은 儒敎哲學에 刺戟을 주고 影響을 미쳤음이 道教보다 더하였음은 無論이었다. 어쨌든 三敎 서로 影響을 끼쳤으며, 그 敎理自體에도 各各 類似點과 相異點이 또한 無論 있으려니와, 그 研鑽方式 및 名號等에도 서로 닮은 點・틀린 點이 또한 많았다. 그 예로서 老子는 無爲自然을 宗旨로 하는데, 佛家에서도 不生不滅 常住不變의 存在를 無爲라 하여 우리 國內에도 그 理念의 表現인 無爲寺가 있으며, 儒家의 敎敎理念에도 無爲而化를 내세웠고, 孔子는 「予欲無言」 하였는데, 禪界에서도 無言의 行을 하였으며, 老子도 「言者不知知者默」 하였고, 宋代大儒 濂溪周敦頤는 「無極而太極」을 말하였으매 그 嫡統學者 晦庵朱熹는 濂溪를 「珍重無極翁」으로 일컬었는데, 無極은 老子書에도 佛說에도 다 일컬었으며, 高麗의 名僧一然도 無極으로 自號하였고, 그 高弟 混丘도 無極老人으로 自稱하였으며, 佛家에 般若心經이 있는데, 儒家에서 心經을 지었으며, 그 밖에 居士의 稱號・修養을 爲한 精舍 等 微細한 類似點은 다 들 수 없다. 그리고 그 理念의 指標에 있어서 佛家는 本來의 願想世界에 두어 來生의 果報를 爲하야 苦業을 남게 하고, 道家는 飛昇上仙을 爲하야 修鍊과 養生에 힘쓰는데, 儒家는 現實社會를 바로 잡아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目標를 두었으며, 그 進德修業에 있어서 佛家는 禪定頓悟・見性成佛에 精進하는데, 儒家는 格物致知窮理盡

性誠意正心에 勉強하며, 道體에 對하여 道釋兩家에서 虛無寂滅・不生不滅을 말하는데, 儒家에서는 虛靈知覺과 靜的인 存養・動的인 省察에 注力하며, 修養의 方法으로서 道佛兩家에서는 枯木死灰・枯骨觀 등을 탄는데, 儒家에서는 日用常行의 彝倫과 絮矩의 道를 말한다. 그 深奧한 眞理에 對하여서는 淺學인 筆者로서 잘 알지 못한 바로 以上은 다 平凡한 部分의 儒釋老의 同뒀에 對한 淺見이라.

X. II. 儒敎의 本質.

儒敎哲學을 論함에 있어서 먼저 儒敎의 本質이 現代에서 이른 바 宗教인가 아닌가를 考察한 必要가 있다. 儒敎에서는 다른 宗教에서처럼 神을 받들어 祭祀나 禮拜를 行하고 祈禱를 올리는 인이 없다. 또 다른 宗教에서처럼 極樂世界나 天堂地獄 등 未來의 禍福을 말하지 않았다. 儒敎에서도 天과 上帝의 말이 있으나 祭祀・禮拜・祈禱하는 일은 없고 孔子當時인 周代의 制度로 天子는 天 및 社稷・山川海嶽의 祭祀를 行하고, 諸侯는 祭天을 못하고 社稷과 境內山川의 祭를 行하였으며, 先代를 祭祀함은 報本追遠의 道란 뜻으로서 이도 天子・諸侯・大夫・士・庶人의 階級에 따라 行祭하는 代數의 範圍와 祭品 등이 制限되어 信仰과는 다르다. 成均館과 鄉校 등은 敎育의 目的으로 設立한 것이요, 「釋菜于先聖先師」란 周禮의 文句에 依해 春秋享을 行하였는데, 敎育은 衰頹하여지고 春秋享만을 行하게 되어 버렸으며, 估畢齋金宗直의 與密陽鄉校諸子書에

「比來學風頹廢，長幼凌節，新舊失倫，絃誦之聲殆絕，驕淫之風相尚，誹謗每及於官府，告訐輒形於友朋，其所爲至有樵童牧豎所常道，……抑又聞敎坊娼女，人各自占，招宿齋舍，或有柅竊者，且於擇貧飲暇及師長稱壽凡宴好之日，明倫堂上，妓樂前陳，青衿雜糅，淫歌慢舞，詼嘲嫖笑，備諸醜態，夜以繼晝，居師席者，亦狃於故常，恬不之怪，遂含糊不之禁，非惟不之禁，又從而沉醜袒裼者，往往有之。」

하여 極度の 學紀頹廢를 보였다. 國初에 가까운 成宗朝에 벌써 이러하였으니 그 뒤는 言語道斷이었던 터라. 退溪書에도 그러한 學風의 頹廢를 慨嘆한 말이 종종 보인다. 그래서 鄉校보다 靜僻한 山水 좋은 곳・煩雜한 外界에 接觸되지 않는 곳・정말 修養에 맞는 士子 廢修之所를 만들어, 鄉校의 敎授나 訓導처럼 榮進에 汲汲한 官吏가 아닌 學德이 높은 이를 洞主 즉 院長으로 하여, 工夫에 專念한 수 있는 興件을 만들고, 또 學者의 敬慕하는 先賢에게 釋菜의 禮도 行하여 進修의 指標로 하기도 하려(書院의 처음 일어난 時期에는 享禮를 行하는 例를 두지 않았던 곳도 많았음) 것이 中國의 白鹿洞에 온판아 榘齋周世鵬이 일으켜 退溪가 推進하였던 白雲洞 즉 紹修書院이었는데, 後日에는 書院도 鄉校

의림, 또는 家廟처럼, 嚴祠처럼 되어 버렸다.

X Ⅲ. 大成殿과 啓聖祠.

그리고 大成殿의 稱號도 佛家의 大雄殿・道家의 三清殿等 稱號에 依倣한 것으로 古代에는 없었으며, 位板의 題號도 漢代逆賊王莽이 孔子를 褒聖宣尼公이라고 贈諡한 데서 비롯하여, 唐代에 와서 위에 말한 바 老子를 그 始祖라고 皇帝로 追尊하고 孔子를 文宣王으로・顔曾以下를 公・侯・伯 등으로 贈諡하였으며, 宋代 및 元代에 차례로 加贈하여 孔子를 大成至聖文宣王으로 하고 配享位에도 變動이 있었으며, 또 道觀과 佛殿처럼 孔子以下 諸聖 觀像이었던 바, 明代에 와서 位板으로 고쳤으며 諸聖 廟額도 先聖廟로 고치고, 位板의 題號도 孔子에게 「至聖先師孔子之位」로 하고, 顔曾以下도 다 爵號를 버리고 先師・先儒等 稱號로 (明世宗時 大學士張孚敬의 建議에 의한 것임) 고쳤는데, 우리 나라에는 成宗廟 休思廟 등에 依하여 孔子의 位 牌位를 고쳐 先聖로 하였으며, 稱號는 그 아래 하였으므로 宣祖朝 重峰趙憲은 中國의 使行에서 돌아와

「其稱公稱王者, 於夫子所謂君臣臣父父子之道, 一切皆亂, 而任尊聖人, 以欺天下, 曾謂貢家臣之詐而易大夫之簪者, 其肯安乎斯名乎, 況自稱皇帝, 以所以封其臣子者強加之, 无非所以尊聖人。」

이라 하여 中國과 같이 고치자 하였다. 「貢家臣之詐」는 孔子의 病이 危重하자 그 弟子子路는 大夫의 禮로 장사하려고 家臣을 만들었다가, 孔子가 깨어나서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君臣, 吾誰欺, 欺天乎。」

라고 꾸짖었으며, 「易大夫之簪」은 曾子의 病中에 季孫氏의 보낸 「華而敝」 밧나고 환한 大夫之簪에 숨혀졌음을 알자 「吾得正而斃」 하겠다고 말하여 易簪을 하게 하여 죽었던 것이었다. 이에 對하여 退溪는

「尊以是號, 世代已久, 程朱大儒, 亦無異議, 一朝削去, 實所未安。」

하여 輕議하기 어렵다 하였으며, 從祀한 中에도 史記의 「身通六藝者七十人」이란 말에 依하였으나, 그 中에서 顔回曾參은 四聖에 들어 內廡에 높히 享祀하며, 또 孔子는

「從我於陳蔡者皆不及門也, 德行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子夏。」

하였는데, 이는 陳蔡間에서 難을 만났을 때 따랐던 弟子들이 마칠 있지 않았으므로 생각

하여서 한 말로서도 그中에서 優秀한 열 사람의 長點을 들어서 말한 것이었다는데, 이를 十哲이라 하여 또한 四聖의 다음으로 廡內에 올렸으나 그 中 顏淵은 四聖에 들었으므로 子服으로써 補充하는 등, 또 顏回 두 분과 十哲을 빼놓고 七十人의 數를 補充하는 등, 申根申熈 같이 一人二名을 二人으로 誤認贈諡하여 從祀시켰다고 다시 하나를 빼내는 등, 또 그 後代 從享한 中 不當한 이를 다시 黜享시키는 등, 또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從享시켰던 栗谷李珥·牛溪成滉을 黜享시켰다가 다시 從享(黨爭關係)시키는 등, 또 그리고 孔子의 아버지인 叔梁紇을 主壁으로 하고 四聖(孟子의 아버지는 이름도 알지 못함) 및 宋朝三賢의 아버지(程珦·朱松·蔡元定)를 從享하는 啓聖祠를 만들어 叢廟나 佛家の 羅漢殿과 道家의 諸般壇과 비슷하여 「釋崇于先聖先師」의 意義에는 距離가 먼 듯한 感이 있는 등, 그 때마다 贊反의 爭論이 紛紛하였으나 그 論議에 參加하는 朝臣들이나, 最後의 決定權을 가진 君主나, 다 學者도·教育家도 아닌만큼 그때그때의 勢力과 感情에 左右되어 正論도 輿論도 威力으로 눌러댄 例가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儒敎는 그 本質에 있어서 다른 宗教처럼 現實社會를 떠난 天堂·極樂·地獄·冥府 및 福田利益等說을 排除하는 「不語怪力亂神」 즉 非科學的인 것과 社會秩序를 무너뜨린 言動을 양는다는 것을 Motto로, 禮拜도·祈禱도 行하지 않는 어디까지나 現實的이며 理性的인 政治哲學·倫理哲學을 主로 하는 學問이요, 宗教의 要素는 지니지 않았다. 孔子는 Socrates와 비슷하고 Sakahymuni나 Christ나 Mahommed와는 같지 않다.

XIV 儒敎哲學의 基本, 河圖洛書

儒敎哲學의 基本은 河圖洛書에 있다고 儒敎徒들은 믿었다. “現傳하는 河圖와 洛書는 數學의 基礎原理를 說明한 圖面이었던 듯하다. 河圖는 中國의 傳說史인 伏羲氏時代 黃河에서 龍馬의 등에 그려져 나왔다 傳하며, 洛書는 西紀前約二十三世紀頃 夏禹가 治水事業을 할 때 洛水에서 龜背의 등에 그려져 나왔다 傳한다. 이 傳說中 伏羲氏에 對하여서는 年代를 잘 알지 못하나, 中國史家는 人類發展의 順序를 神格化하여 說明하여서 南洋島嶼人처럼 樹上生活하던 時代를 有巢氏·人類가 火를 使用하기 시작한 時代를 燧人氏·牧畜時代를 伏羲氏·農耕文化를 시작한 時代를 神農氏 등으로 말하였는데, 그 뒤 黃帝라는 이가 그 種族 즉 漢族을 거느리고 西方 黃河上流地帶에서 東으로 내려와 이 神農氏系의 種族들과 極烈한 鬭爭을 繼續하여 黃河流域의 平野를 차지한 것이 中國古代記錄에 고인 漢族의 發源이요, 伏羲氏神農氏系統은 白河·黃河·淮水 등의 下流 및 山東半島 등에 살아 荊夷·淮夷·嵎夷·菑夷·萊夷·孤竹 등 많은 部族國家들을 이부어, 그 뒤 春秋·戰國時代까지 미치어, 文化가 交流되고 血統이 混雜되어 秦始皇의 中國統一時에 이르러

漢族과 完全同化되었으나, 當初 그들은 Ural Altai 系의 Tungus 族이 滿洲・東部內蒙古・韓半島 및 그 地域으로, 즉 渤海灣과 黃海를 끼고 分布되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東方文化의 創始者이다. 漢族은 그들에게 싸워 이겨서 그들의 文化를 빼앗았다. 西洋史에 Babylonian 이 Ur 와 Accad 를 征服하여 그들의 文化를 攝取하였고, Roman 이 Greece 를 이겨서 그 文化를 이어받았음과 같이 이 東夷의 古代文化를 漢族이 이어받아, 漢文化를 이루었다. 伏羲氏는 河圖를 보고서 八卦를 그렸으며, 그 뒤 周王朝를 일으킨 文王 및 文王의 아들로 周王朝의 모든 制度文物을 制作하여 그 基盤을 굳게 만들었다는 名政治家 周公 이들 父子에 依하여 家・象等 卜辭가 갖추어지, 周易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孔子가 繫辭를 달아 現傳하는 周易으로 되었다 하며, 孔子의 繫辭는 그 卜辭에 科學的說明을 붙이려고 努力하였음이 보인다.

「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

라 하여 等倍級數의으로 나가 다시 64卦로, 384爻로 된다. 龍馬와 거북의 등에 그려진 것을 보고 卦를 그려 그것으로써 또 점을 하었다는 것은 最近 出土된 殷墟遺物의 龜甲獸骨 등을 태워서 그 갈라진 금을 보고 점을 하었다는 그 文字들을 보면 首肯이 된다.

X V 人心道心說

그리고 論語에

「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舜亦以命禹。」

하였고, 尚書의 大禹謨에

「天之曆數在汝躬，汝終陟元后，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하였다. 人心은 사람의 가진 마음인데 옳한 생각을 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을發할 수도 있으니 「惟危」라 할 수 있고, 道心은 하늘에서 받은 옳한 良心인데 그것을 잘 保全하여 잃지 않기 힘드는 만큼 쉽게 나타나 보이기 어려운 까닭에 「惟微」라 하였으며, 「允」은 「정말로」, 또는 「옳게」란 뜻이오, 中은 不偏不倚하고 過도 不及도 없는 正當 中道를 이름이니, 이 精一執中의 心理學과 太極陰陽의 宇宙觀은 儒教哲學의 基本을 이룬 것이오, 堯와 舜은 私心を 가지지 않아 王位를 子孫에게 傳하지 않고, 聖者에게 禪讓한 理想的 君主요, 完全한 人格으로 追慕하는 標本으로 삼는 것이라.

X VI. 一貫說과 性與天道.

그리고 孔子는 그 弟子인 曾子 및 子貢에게 「吾道一以貫之」라고 일렀는데, 曾子는 一貫의 이치를 다시 質問한 다른 弟子들에게 忠과 恕로써 答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그 뒤 宋代의 朱子는 說明하기를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라고 하였다. 子貢은 또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라고 感歎하였다. 즉 一貫說은 性與天道를 말한 것이라는 뜻으로 된다. 이 또한 心法에 관한 즉 心理學的 說明이었다.

X VII. 大學과 中庸

曾子가 지었다는 大學書에 格物致知 즉 物理를 研究하여 知를 얻게 되어, 그로서 誠意를 하는데, 誠意는 慎獨에 있다 하였으니, 慎獨은 人所不知而已所獨知하는 자리에서 心의 發作인 意를 誠慎히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心이 正하여지고, 心이 正하여지면 身이 修하여지고, 身이 修하여진 뒤 家가 齊하여지고, 家가 齊하여진 뒤 國이 治하여지고, 國이 治하여진 뒤 天下가 平하여진다고 論하였으며. 曾子의 弟子인 子思(孔子의 孫)는 中庸의 道를 論하면서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라고 그 첫머리에 道破하였다. 하늘에서 타고 난 것이 性이니, 性은 곧 善하다. 그 뒤 그 道統을 이은 孟子의 唱道한 性善說의 根據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天命으로 받은 性 그대로 따라나가면 道이고, 道 그것을 닦는 것이 教이니, 儒敎의 心理哲學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X VIII. 浩然之氣와 性善說 및 四七理氣說: 無極太極說.

孟子는 또 浩然之氣를 말하여 그 氣는 義와 道에 配合되어야 하미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

죽 여지로 작정하거나, 뿌아올리려 하지 말고, 間斷없이 培養하여야 한다 하며, 우물 안
으로 기이들이가는 이련애를 보느 그 惻隱之心이나 나 仇陽惻隱之心이 나게 된 사람까
다 모두 不忍人之心을 가졌음이니 그것이 仁이다. 그래서

「惻隱之心仁之端也, 羞惡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禮之端也, 是非之心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라 하여 그 四端을 다 지니지 않았는 者는 사람이 아니오, 그것을 지니코지 不能으로 自
處하는 者는 自賊 즉 自己를 賊害하는 者라 하였다. 이것이 이른 바 四端이다. 四端은
사람마다 지녔으며 物慾으로 因하여 不善한 者가 있게 됨은 齊郊에 있는 牛山之 나무가
夜氣와 雨露에 자라나도 斧斤과 牛羊의 찍고 뜯는 바로 되는 것과 같다고 譬喩하여, 하고
자라는 自然 그것이 天性이라 해서, 當時 一部人士들의 性의 善惡方向不定說・仁內義外
說 등과 楊子의 爲我說・墨子의 兼愛說等을 痛駁하여 中庸의 性을 보았으며, 그 뒤 荀子
(孟子의 弟子의 弟子라 함)는 性惡說을 主張하여 仁義와 같음은 다 矯飾이라 하였으며,
唐代의 韓愈는 人性의 上中下 三品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宋代의 程子是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爲人, 其本也眞而靜, 其未發也, 五性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既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懼愛惡欲, 情既熾而益蕩, 其性慤矣, 故覺者
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養其性而已.」

하여 孟子가 말한 仁義禮智의 다음에 信을 더하여 五性이라 하여 五行의 數에 맞추었고,
또 七情이라는 것을 말하여 그것은 形이 생하여 外物에 接觸하므로 그 中이 動蕩하여 생
기는 것이라 하고, 이에 氣質之性을 말하였다. 氣質之性은 理의 本에서 나오는 性이 아
니므로 美惡清濁이 一致하지 않아 本性 그대로를 지낼 수도 있고 本性을 잃어 惡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程子의 스승인 周濂溪는 上說한 太極圖說을 지어

「無極而太極.」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無極太極論 및 四七理氣論은 儒敎哲學上 新局面을 展開함
과 함께 後人論辯의 基本으로 된 것이었다. (佛敎影響에 因한 點도 認定된다.)

XIX. 朱陸論辯.

南宋時代의 晦庵朱熹 즉 朱子는 程子의 學統을 傳承하였는데 그 親友인 東萊呂祖謙과
같이 寒泉精舍에서 周程 및 橫渠張載等 諸先生의 學說을 모아 近思錄을 編次하고 나서
떠나가는 呂東萊를 餞送하려고 江西省信州의 鵝湖寺에 이르자 江西省金谿의 學者 復齋

陸九齡・象山陸九淵兄弟와 清江劉澄之가 와서 講討하였는데

「俱執己見，不合而罷。」

라 하였다. 鶴湖辯論의 內容은 仔細히 傳하지 않으나 復齋詩의

「後提知愛長知歟，古聖相傳只此心。」

과 象山詩의

「墟墓與哀宗廟歟，斯人千古不磨心。」

等句語로써 볼 때 唯心說 즉 心即理를 主張하여 氣質之性을 認定하지 않았는 듯하며, 朱子詩의

「舊學商量加邃密，新知培養轉深沉。」

等句語로써 볼 때 그에게 舊見도 깊이 研精하려니와 새로운 見識도 開拓하여야 한다고 勸告한 뜻인 듯하다. 그리고 兩側의 往復한 轡翰들로 보아 二陸의 主張은

「易之大傳曰，形而上者謂之道，又曰，一陰一陽之謂道，一陰一陽已是形而上者，況太極乎，極者中也，言無極則見言無中也，豈宜以無極字加於太極之上，無極二字出於老子，聖人之書無有也。」

이 간이 太極 위에 無極을 엮었음은 不合理하다고 周濂溪의 太極圖說을 反對하였다. 이에 對하여 晦庵은 答하기를

「大傳既曰，形而上者謂之道矣，而又曰，一陰一陽之謂道，此豈眞以陰陽爲形而上者哉，正所以見一陰一陽雖屬形器，然其所以一陰而一陽者，是乃道體之所爲也，故謂道體之至極則謂之太極，謂太極之流行則謂之道，雖名二物，實無兩體，周子所以謂之無極者，正以其無方所無形狀，以爲在無物之前，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以爲在陰陽之外，而未嘗不行乎陰陽之中，以爲通貫全體無乎不在，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

하여 陰陽은 形而上者가 아닌 形器에 屬한 것이고, 太極이 곧 道體고, 無極이 곧 太極인 데 無極이니 太極이니 달리 말하게 된 意義를 說明하고 또

「今乃深詆無極之不然，則是直以太極爲有形狀有方所矣，直以陰陽爲形而上者，則又昧於道器之分矣，又於形而上者之上，復有箇太極乎之語，則是又以道上別有一物爲太極矣。」

하여 陸說을 逐條辨破하고, 또

「如老子復歸於無極，乃無窮之義，非若周子所言之意也。」

하여 老子의 말한 無極과 周子의 말한 無極의 意義가 같지 않음을 말하였다. 이에 對하여 象山은 다시

「兄若實見太極，上面必不更加無極字，下面必不更着道體字，上面加無極字，正是牀上之床，下面着道體字，正是架屋上之屋，老氏以無爲天地之始，以有爲萬物之母，以常無觀妙，以常有觀徼，直將無字，拚在上面，正是老氏之學。」

이 같이 無極・太極・道體 三者가 同一하다면 왜 疊說하느냐고 나무레고시 바로 老氏之學이라고 비꼬았다. 晦菴은 또 答하기를

老氏之言有無，以有無爲二，周子之言有無，以有無爲一，正如南北水火之相反，更請仔細着眼，未可容易譏評。」

이라고 老・周 兩家의 말한 無極의 各各相異함을 말하였으며, 象山の 再書는 辭義가 더욱 憤懣하였으므로 晦庵은 그 答에서

「凡下論，亦須平心和氣，仔細精詳，反覆思量，務求實是，乃有歸着，如不能然，但於忽遽急迫之中，肆支蔓躁率之詞，以逞其忿懣不平之氣，則豈有君子長者之意乎，如曰未然，則各尊所聞，各行所知，無復可望於必同也。」

라 하여 잘라 말하여 버렸다. 이것이 朱陸論辯의 大要였다.

XX 儒敎의 傳來

儒敎의 우리 나라에 들어온 年代는 未詳하나 아마 漢文字의 入國과 同時에 그 制度文物等 모든 文化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漢文字의 入國年代도 未詳하다. 地域적으로 아주 가깝고, 또 感受性이 빠른 우리 民族이오, 더욱이 옛적 遼河流域에서 白河・黃河・淮水等の 下流地帶와 山東半島等에 血緣적으로 우리와 同一系統의 民族이 살아있었던 만큼 彼此間 文化의 交流가 促進되었음은 史的으로 많은 證感이 歷然하다. 管子書에 發朝鮮之文皮를 말하였고, 戰國時代 趙에서 發行한 明刀錢이 우리 西海岸一帶에 出土되었으니 中國과의 貿易이 春秋・戰國時代 벌써 行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漢文字도 들어왔을지며, 孝文廟鐘・粘蟬縣神祠碑・其他樂浪帶方郡治址의 出土品들에 刻銘한 것들로 보아 漢郡時代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漢文字를 盛히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漢郡以外 南韓地方에도 三國志韓傳에

「諸韓國臣智，加陽邑君印綬，其次興邑長，其俗好衣績，下戶詣郡朝謁，皆假衣績，自服印綬衣績千有餘人。」

그들이 貿易의 利를 貪하여 衣幘 즉 漢式服裝을 갖추고, 漢官의 주는 印綬를 차고 漢郡으로 드나들던 우리들의 漢文字學習熱을 想像할 수 있으며,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其遠處，直如因徒奴婢相聚。」

즉 北部의 漢郡에서 가까운 地方에는 漢式禮俗을 더러 본받기도 하고, 漢郡에서 먼 南部地方諸國에서는 漢式的 模倣이 없으므로 漢人들은 因徒奴婢의 相聚한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現代都市와 農村에서의 洋風浸透度の 隔差가 있음과 비슷하였던 것이었다. 따라서 우두미리인 上層部와 一般民衆과의 사이에서도 漢文化習得에 있어서 隔差가 있었을 것이다. 麗王의 篋篋引과 琉璃王黃鳥詩도 우리 歌謠의 漢譯이 아니고, 바로 漢詩를 읊었음인 듯하다. 三國時代로 되면서 차차 漢郡은 消滅되었으나 漢式的 模倣·漢文의 習得에는 依然히 熱을 올렸다. 百濟蓋鹵王의 北魏孝文帝에게 보낸 글은 그 卑劣한 품과 附諂한 태도는 차마 바로 볼 수 없지마는 그 文淵은 남을 움직인단 하였는데, 高句麗의 實力 앞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禍를 끌었으나 글은 上乘이요, 乙支文德의 隋將于仲文에게 보낸 詩 및 善德女王的 唐帝에게 보낸 太平頌은 하나는 眞實한 詩요, 하나는 阿諛하는 詩지마는 作品은 다 上乘이었음이 從來定評이 있었던 바요, 文武王의 唐將薛仁貴에게 한 答書도 비록 卑屈하게 弱者의 悲哀를 느낄 만하나, 羅唐紛爭의 來歷과 옳고 그름이 條理整然하게 叙述되어 實로 上作이다. 이는 強首의 作品임이 틀림 없을 것이다. 強首는 太宗·文武 兩朝에 遇知하여 外交文을 專擅하였으니 文武王의 말한

「強首文章自任，能以書翰致意於中國及麗濟二邦，故能結好成功，我先王請兵於唐，以平麗濟者，雖曰武功，亦由文章之助焉。」

한 것이 그것이라. 強首의 前에 圓光도 위에 보인 바 僧侶로써 外交文을 맡았으니

「此時，高麗百濟常侵邊郡，王甚患之，欲請兵於隋(註에 宜作唐이라 하였으나 三國史에도 隋에 請한 것으로 하였으며, 또 이 遺事의 간은 圓光傳中에서 圓光이 唐貞觀四年卒로 하였으니 隋가 옳은 듯). 請法師作乞兵表，皇帝見，以三十萬兵親征高麗，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

하였다. 여기 儒術이라 하였음은 亦是 漢文學을 指稱하였음이라. 強首傳에도

「自知讀書，通曉義理，父欲觀其志，問曰，爾學佛乎，學儒乎，對曰，愚聞之，佛世外教也，愚人問人，安用學佛爲，願學儒者之道。」

이기에 말한 儒道는 위에 보인 바 淵蓋蘇文의 말한 「儒釋並興」이나, 圓光을 두고 말한 「傍通儒術」이나 다 漢文學을 指稱함이요, 儒教哲學인 心性理氣의 論 및 太極說等은 아니었음이 勿論인지마,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리라 迫想된다. 漢文學은 新

羅統一期에 들면서 遣唐留學生과 國學의 施設・讀書出身科의 制定等으로 더욱 盛이 되었으니, 強首傳末에

「新羅古記曰, 文章則強首帝文守眞良圖風訓骨香, 帝文以下, 事逸不得立傳。」

하였고, 薛聰傳末에

「朴仁範元傑巨仁金雲卿雖僅有文字傳者, 而史失行事, 不得立傳。」

하였고, 또한 同傳末에 附記한 聖德王時의 金大問은

「作傳記若干卷, 其高僧傳花郎世紀樂本漢山記猶存。」

하였고 또한 附記된 入唐登第하였다가 後百濟甄萱에게 베풀하였던 崔承祐와 또한 入唐登第하였다가 高麗太祖에게 베풀하였던 崔彥爲等도 이름은 있으나 作品은 많이 傳하지 않고, 立傳이 된 強首도 그의 作品이라고 傳하는 遺文은 現存하지 않고 朴仁範以下「僅有文字傳者」라고 쓰인 것도 朴仁範・巨仁等의 詩 각각 하나씩 傳하는 外에 元傑以下 現存한 文字도 없고, 金大問의 「猶存」하다는 傳記若干卷이라는 것도 現存한 바 없고, 崔承祐의 闕本集이라는 四六文五卷도 現存한 바 없으며, 오직 甄萱을 爲하여 지어서 麗祖에게 移文하였다는 것 一首가 三國史 및 遺事에 실렸을 뿐이오, 現存한 名作 奉德寺鍾銘을 지었던 金剛奚의 이름은 위에 보인 三國史에 列擧한 文士名單中에 빠졌다. 대개 우리 나라 사람은 우리 自體의 歷史나 文獻을 너무 疎忽히 하여 그 遺文이 傳하지 않으니 그들 文學의 價値와 學問의 程度를 詳攷할 길이 없어 當時儒學界의 詳細도 알 수 없다. 薛聰은

「性明銳, 生知道德, 以方百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하였는데 이것으로써 혹은 吏讀을 薛聰이 創製한 것으로 하여

「又以僊語製吏讀, 行於官府公簿」

하였음은 誤認인 듯하니 그 以前의 三國時代文獻은 勿論, 三國志東夷列傳의 記錄에까지 吏讀式方法의 記載가 종종 보인다. 아마 薛聰은 近世 國文制定以後 經書諺解를 하였던 것이 吏讀로써 經書解釋을 하였음이었는 듯. 南溪集에

「我國經書之口訣釋義, 中朝所未有, 發於薛聰, 成於鄭圃羅權陽村, 至世祖朝, 分命諸臣, 著口訣, 而紛糾錯雜, 又至宣廟朝, 設局命官, 參互去取, 著定諺解, 遂爲一代之典, 可謂盛矣。」

하였으니 諺解를 하기 前에는 全經書를 口訣 즉 吏讀文으로 譯解하였음이니 여간 기창한 일이 아니었다. 생각건대 薛聰以前에는 事物에 따라서 譯記하는 方法이 區區하였으

니 예를 든다면 伊伐飡・伊罷干・酒多・角干이나 徐耶伐・鷄林・鳩林・新羅等 一語各譯과 冥斯夫를 苦宗으로도, 居柒夫를 荒宗으로도 譯記하였듯이 되었는데, 九經全部에 口訣釋義를 하였다는 功勞는 實로 莫大한 것이었으며, 이로 因해 모든 事物의 口訣譯記方法도 確立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니 吏職을 지었다고 傳하게 되었으리라, 이로써 그의 儒學에 있어서 貢獻한 教育의 功績과 學者로서의 地位가 높았음을 可히 알겠으나, 그 學問의 所至는 알기 어려움은 그 遺文이 神文王에게 諷諫하였다는 花王說話 한게만이 史記에 傳해질 뿐이오.

「又能屬文，而世無傳者，但今南地，或有聽所製碑銘，文字缺落，不可讀，竟不知其何如也。」

하였다. 年代도 멀지 않고 高麗盛際인 仁宗時 벌써 이러하였으니 말할 수 없다. 薛聰과 같이 羅代의 二大儒로 처서 孔子廟에 먼저 配享까지 된 崔致遠은 遺文이 아직도 더러 傳한다.

「新唐書藝文志云，崔致遠四六集一卷桂苑筆耕二十卷，註云，崔致遠高麗人，資貢及第，爲高駢從事，其名聞上國如此，又有文集三十卷，行於世。」

이 밖에도 中山覆篋集五卷・經學隊仗三卷이 있다 하였는데, 지금 傳한 것은 그 桂苑筆耕만이 中國에서 傳來한 까닭에 우리 나라에로 다시 傳하여졌으며, 그 밖에 南部地方에 아직 殘存한 當時寺碑・浮屠들에 銘文이나, 아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零落歌詩들이 '혹 있다. 우리 文士로써 文名이 國際的으로 드높기는 그를 第一이라 하겠으니, 十二歲에 商舶에 실려 入唐留學하여 六年만인 十八歲에 登科하여 當時 唐의 一流詩人인 羅隱・顧雲等이 다 感服하였으니, 顧雲은 그의

「崑崙東走五山碧，星宿北流一水黃。」

의 句에 對하여 「即一輿地志」라고 激讚을 하였으며, 그를 보내는 詩에

「十二乘船渡海來，文章撼動中華國，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

한 것이 그것으로서 白雲小說에는

「唐書藝文志，載致遠四六集一卷，又刊桂苑筆耕十卷，余未嘗不嘉其中國之廣蕩無外，不以外國人爲之輕重，而既載於史，又令文集行于世，然於文藝列傳，不爲致遠特立其傳，……余以私意揣之，古人之於文章，不得不嫌忌，崔致遠以外國孤蹤，入中朝，踴躍當時名輩，若立傳直其筆，恐涉其嫌，故略之歟，是余所未知者也。」

이 當時名輩들이 모두 外國人인 그에게 加服하게 되었던 까닭으로 嫌忌하여 立傳하지

않았음인가 하였다. 그러나 外國人으로서도 立傳을 하게 된 李正己・黑齒常之등처럼 唐에 投化하지 않고, 그는 二十八歲로써 錦衣東還이었던 까닭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同様に

「崔致遠孤雲有破天荒之大功，故東方學者皆以爲宗，其所著琵琶行一首，載於唐音遺響，… 如黃巢檄一篇，雖不載於史籍，異議至不惟天下之人，皆思顯戮，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不覺下床而屈，如非泣鬼驚神之手，何能至此，然其詩不甚高，豈其入中國，在於晚唐後故歟。」

하였고, 蛟山許筠도 그 詩의 格이 그리 높지 않다고 評하였으나 그 秋夜雨中詩만은 다들 絶讚을 하였으며, 破閑集과 補閑集에는 公의 詩를 다 絶讚하고, 補閑集에서는 그의 臨鏡臺詩를 紹介한 다음

「公所留詠，率不過絶句一首，就中佳景，無不破的，故過客見之，吟詠不足。」

이라 하였다. 또 公의 文은 駢體에 너무 홀려 纖弱하다고 탈잡기도 하나, 魏晉以來 中國의 文體가 全部 四六으로 되었으며, 韓愈・柳宗元이 古文을 帖道하였으나 그 때까지는 날이 열어 文風이 아직 不變하지 않았으며, 公式文字는 後世에까지 四六을 그대로 遵守하였는데, 더욱이 公은 絶域孤蹤으로써 桂苑筆耕의 題目이 말한 바와 같이 翰林院에서 그것으로써 밥을 먹고 있었으니 駢體文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文集이 傳해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公의 文章은 漢文學의 極致에 到達하였다고 하겠으나, 儒敎哲學인 誠意正心에 관한 말은 없다고 慎齋周世鵬이 晦庵李彥迪先生에게 올린 편지에

「崔文昌之文藻神異，其所見所行，眞可謂百世之師，而至於誠正之說，槩乎其未聞也，然，其生一隅倡文學，功莫大焉，則配享先聖，非斯人而誰歟。」

하였다. 文學을 일으킨 功으로써 先聖에 配享할만하다는 말도 矛盾性이 있으리니와 所見所行이 百世之師로 될만한데 誠正之說이 없다고 탈잡는 것은 朝鮮時代 儒學界의 實踐보다 理論을 重視하는 氣風이 드러나며, 그리고 또 聖廟從祀를 重視하여 後日分黨爭論의 氣風도 이미 보인다. 그런데 退溪는

「我朝從祀之典，多有未喻者，如崔致遠，徒尚文章，而諂佛又甚，行見集中佛疏等作，深惡而絶痛之，與享文廟，豈非辱聖之甚乎。」

하여 그를 諂佛로 나무랐다. 그러나 그의 寺碑나 塔銘等作은 다 王命으로서 짓게 되어 羅麗兩代의 文士로서는 免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沈約의

「孔發其端，釋窮其致。」

라 한 말에 對하여

「佛語心法，玄之又玄，終類係風捕影，爲難行也。」

하였고 張良의 願從赤松子遊說에 對하여

「假學仙有始終，果能白日上升去，止得爲鶴背上幻軀。」

하였고 儒佛老三教을 두고 옮기름

「麟聖依仁乃據德，鹿仙知白能守黑，更迎佛日辨空色，教門從此分塔城。」

하였으니, 亦是 儒를 主로 하고 佛老를 虛誕한 것으로 보았음이 드러난다. 最近 또 抄寫한 經學隊伍이 奉化와 慶州 二處의 崔氏家에서 各各 나왔는데, 다 古本으로써 缺落이 많으나 奉化本은 더 甚하였다 하며, 崔氏들에 依하여 約五十年前 刊布되었으니, 道德心性에서 太極陰陽禮樂刑政等 心性情論・天地生成說・政治論等 百三十九篇의 短篇集으로 되어 옛적 疑義體 비슷한 四六文體로 篇마다 長短이 不一하며, 心性情論의 內容은 거의 程朱氏의 學說과 一致하며, 無極說은 없으나 氣稟之性和 氣質之偏을 說破한 곳이 있으니, 萬若 이것이 그의 所著임이 틀림 없다면 時代的으로 二程보다 約一世紀半前인만큼 儒教哲學 史上에 있어서 한 重大한 機軸이 우리 學界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點으로써 크게 注目을 要하는 바라. 그러나 筆者는 淺識이오, 또 겨름을 얻지 못하여 아직 原本을 얻어 보지 못해 깊이 探究하지 못하여 恨스러운 바라. 만약 退溪께서 이 글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論評하였을지?

XXI 高麗의 儒教.

高麗時代로 되어서는 그 初期부터 學校・國子監의 設置・科學制度의 實施・博士敎諭의 地方派遣等 歷代의 右文政策에 依하여 漢文學은 크게 일어났으며, 더욱이 海東孔子로 인격어진 文憲公崔冲의 九齋養士를 비롯하여 當時 十二徒의 稱이 있었던 私學의 勃興으로 文風이 蔚然하였다. 그러나 崔文憲을 비롯하여 弘文公鄭倍傑等 十二公의 遺文이 거의 傳한 바 없고, 오직 崔文憲의 弘慶寺碣記 같은 歷游된 文字를 겨우 더듬을 수 있는 荒碑가 남아온 뿐이니, 더욱이 그들의 道學淺深은 알 길이 없다. 時代的으로 中國에서는 周濂溪 및 二程張橫渠等 諸儒와 거의 배를 같이 하였는데, 宋儒의 明白道한 道學은 아직 들어오지 못하였고, 이미 그들의 敎育資料는 經書의 誦讀과 漢文學의 傳授였으리라고 推測된다. 朝鮮時代에 이르러 崔文憲의 文廟從享論이 종종 일어났으나 實行되지 않았음은 道學을 말한 지리가 보이지 않는 까닭인지며, 佛室文字를 더듬음은 더욱이 좋지 않았던 時代傾向이었

던 까닭이었을지라. 그리고 科擧제도 光宗의 寵遇를 받았던 投化漢人雙冀의 建議에 의하여 行하이었는데, 詩賦로써 試上하이었던 까닭에(經書를 외게 하던 明經科도 있어서 이 明經科에 對하여 詩賦를 짓게 하던 것을 製述科라 일컬었음) 浮華輕躁한 士風을 길러버렸다고 後世儒學者들은 늘 慨嘆하였던 바로, 近世中宗朝 靜庵趙光祖는 그 是正策으로 賢良科를 施行하였으나 士禍와 함께 헛일로 되어 버렸던 일도 있었다. 이 浮躁한 士風은 全盛高麗를 侵蝕하였음을 그 當時 이미 文臣中에서 念慮하여 防止하려는 이도 있었으니, 根澹(崔冲의 曾孫)의 傳에

「論登第，事睿宗，時國家閒暇，王尚詞賦好遊宴，嘗宴西京大同江，與侍臣唱和，論亦以知制誥從。上書諫曰，……帝王當好經術，日與儒雅，討論經史，諮諏政理，安有事童子雕篆，數與輕薄詞臣，吟風嘯月，以喪天衷之淳正耶，王優納之，有一詞臣乘隙曰，論所謂儒雅，除臣等，別有何人，論短於詩，故有此言，王怒，左遷春州府使。」

하였다. 그 뒤 王은 그가 그곳에서 한 和人詩를 듣고 그의 能詩함을 알고 곧 召還하였다. 이같이 정말 儒學者는 詞章學의 浮薄을 警戒하였지만, 浮薄한 그들은 도리어 儒雅로 自處하여 이 氣風은 最近世까지 흘러내렸음은 國家에서 그것으로써 取人하여 그것을 잘하여야만 立身揚名하게 되었으니, 眞正한 學問을 探究하여 著述을 남겼더라도 그것을 돌아볼 사람이 없었으니 自然 傳하지 않고 없어지며, 더욱이 그 科文中에 쓰이는 文字는 全部 中國의 文學 및 學術用語歷史 등에서 끌어와야 알아주며 그레야만 識見이 많다고 자랑하게 되니 우리의 歷史典故等도 돌아보는 이가 없게 되며, 모든 學問技藝等도 衰頹一路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近世肅宗朝學者 白湖尹鑰는 國家에서 南漢城垣等을 헐으려고 北伐(淸國征伐)을 하려던 적어도 三十年以上 科擧를 廢止하여야만 한다고 科擧廢止論을 하였음도 理由가 있는 것이었다. 高麗睿宗은 위에 든 바와 같이 崔論의 忠言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大同江船遊에서 뿐만 아니라, 西京行幸의 道中에 지나, 宮中에서 諸臣에게 賜宴할 때나, 節日 등에서 언제나 諸臣에게 詩를 짓기거나, 또 自製하여 和進하게 하여 輕薄한 氣風을 助長시켰으니, 그 손자 毅宗의 亡身敗國한 根源이 여기에서 胚胎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戚臣에게 權力을 맡겨(그것은 그 윗대 肅宗이 어린 조카 獻宗의 王位를 빼앗은 일이 있었던 만큼 어린 아들 仁宗을 위하여 兄弟들을 의심하였던 까닭) 仁宗初 李資謙의 逆亂으로 宮闕이 燒失되었으나 仁宗은 곧 復舊作業을 하여 昇平百年 文物의 隆盛하였음은 宋使徐兢의 쓴 高麗圖經에 보인 그대로 있으며, 妙淸亂後 西京의 施設은 多少舊觀이 減損되었고, 年例行事인 西京巡幸은 많았으나, 開京附近 禮成江流域의 景觀은 是히 放蕩한 毅宗과 輕薄文士들의 行樂을 도울만 하여 드디어 武臣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王權은 完全失墜되고, 輕薄文士들도 沒殺되어 國運과 文運이 한꺼번에 斜陽길로 들

어가, 그 以後 內憂外患이 重疊하다가 對蒙古三十年戰爭의 破壞殺戮으로 全盛高麗의 面貌을 다 잃어버리고, 그 結果 元朝에 屈從하게 되어 서로 兇甥의 誼를 맺어 한집처럼 되어 지나친 內政干涉을 甘受하기도 하며, 열빠진 무리들의 事大思想이 高潮되어 立省本國論까지 擡頭되었으나, 그러나 儒敎界에서는 新生面을 展開하게 되었으니, 即麗元國交의 緊密度가 더하여지고 人物의 來往이 自由로워짐에 따라 宋學即 道學이 들어오게 되었음이었다.

XXII 宋學의 傳來

宋學이 들어옴에 따라 元宗朝에서 高麗의 亡한 때까지 百數十年間 安珦·白頤正·禹倬·李齊賢·李穡·鄭夢周·權近等 名儒가 輩出하였는데, 이 羅末諸儒의 先鞭을 잡은 晦軒安珦은 일찍이 力學登第하여 地方官으로 되어 廉潔과 迷信打破로 이름이 높아 宰相에 이르렀으며, 元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國子司業으로 되었고, 元帝로 부터도 本國儒學提獎에 任命되었으며, 다시 忠宣王을 받들고 入元하여서 元帝로부터 大體를 아는 선비로 칭찬 받았으며, 돌아와서도 興學으로써 一生에 自任하였으니

「珦嘗學校日衰，議兩府曰，宰相之職，莫先教育人材，今養賢庫殫竭，無以養士，請令六品以上，各出銀一斤，七品以下，出布有差，歸之庫，存本取息，爲贍學錢，兩府從之，以聞，王出內庫錢穀助之，密直高世，自以武人，不肯出錢，珦謂諸相曰，夫子之道垂憲萬世，臣忠於君，子孝於父，弟恭於兄，是誰教耶，若曰，我武人，何苦出錢，以養爾生徒，則是無孔子也而可乎，世聞之慚甚，即出錢，珦又以餘資，付博士金文鼎等，送中原，畫先聖及七十子像，並求祭器樂器六經諸子史以來，且薦密直副使致仕李愷典法判書李瑱，爲經史教授都監使，於是，禁內學館內侍三都監五庫願學之士及七管十二徒諸生，橫經受業者動以數百計，……卒諡文成，及葬，七管十二徒素服祭於路。」

하였다 이 같이 崔冲처럼 大教育家인 그는 恒常 巫佛迷信의 盛行과 正學의 衰頹를 恨歎하였음은

「香燈處處皆祈佛，簫管家家盡賽神，惟有數間夫子廟，滿庭春草寂無人。」

한 그 읊은 詩로써 可히 알 수 있다. 彝齋白頤正도 公輔의 그릇으로써 忠宣王을 輔導하였으나 忠宣이 그 말을 能히 쓰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時，程朱之學始行中國，未及東方，頤正在元，得而學之，東還，李齊賢朴忠佐首先師受。」

하였다. 위에 든 安文成도

「晩年，常掛晦庵眞，以致景慕，遂號晦軒。」

하였고 李齊賢도 安珦列傳에는 그 門下에 다닌 것으로 하여 두 記錄의 主張이 相値⁵ 듯하다. 생각컨대 二公은 거의 同時로서 晦軒이 조금 先輩인 듯하나, 中國에서 程朱派의 理學을 가지고 나와서 李益齋·朴堧庵等에게 傳授하기는 益齋가 먼저였는지 未詳함. 晦軒·益齋는 다 中國으로 來往하여서 宋學을 傳來하였지만은 禹祭酒傳은 獨自의으로 未得하였다. 그는 剛直한 天稟으로서 藩祀의 八鈴神像을 무수히 바다에 넣어 迷信을 斥逐시켰으며, 微官末職인 監察糾正으로써 白衣를 입고, 도끼를 가지고, 거지를 매고, 大闕⁶ 들어가 忠宣王의 上烝한 非行을 直斥하고, 멀리서 敢히 바로 읽지 못하는 侍從臣을 痛罵한 有名な 直節인 만큼 朝廷에 容納될 수 없이 벼슬에 뜻을 끊고, 사골 禮安에 물러가 忠肅王의 두 번이나 내린 召命에도 應하지 않았으니, 元으로 갈 機會도 없었다.

「倬通經史，尤深於易，卜筮無不中，程傳初來，東方無能知者，倬乃閉門月餘，參究乃解，教授生徒，理學始行。」

하였다. 그래서 世上에서 易東先生으로 불리워졌다. 그 뒤에 일어난 이로 위에 든 益齋 李齊賢과 堧庵朴忠佐가 있는데, 堧庵은 또한 直節과 廉潔儉約으로써 일컬어졌으며, 벼슬도 宰相의 地位에 이르렀으나 學問에 對하여 크게 論辯發闡한 바 보이지 않고, 益齋는 정말 高麗末期第一 人物로서 그 國家民族 및 君主에게 貢獻한 功績과 忠誠은 極히 컸으며, 그 文章은 忠宣王을 燕邸萬卷堂에 좇아 當時 王門에 游從하던 姚燾·閔復·元明善·趙孟頫 등이 다 稱嘆하던 바로 실로 그 詩文은 簡重典實하여 조금도 浮誕輕薄的 態기 보이지 않으며, 그 品位는 唐·宋 大家들에 配列되어도 그리 遜色이 없겠다 할만 한데, 그의 學問의 힘도 그 글에 隱然히 보이겠으며,

「自少，倬屢不敢斥名，必稱益齋，及爲宰相，人無貴賤，皆稱益齋，其見重於世如此。」

하였으며, 恭愍王까지도 益齋라고 일컬었으며, 辛旽의 욕하려고 한 말에도

「門生布列中外，……遂爲諸國之盜。」

하였음을 보아도 門生은 全國에 들렀고, 名望의 높았음을 알겠으나, 道學에 關한 著述이 別로 없었음은 國事에 叢脞하여 겨를하지 못하였음이었는지? 그런데 鄭麟趾高麗史에는

「其見重於世如此：然不樂性理之學，無定力，空談孔孟，心術不端，作事未甚合理，爲識者所短。」

하였다. 무슨 일로 「心術不端」 또는 「未甚合理」라고 하였는지? 恭愍王이 元에서 아직 나

오지 않는 동안 그를 攝政丞權斷征東省事에 任命하고 다시 都僉議政丞에 任命하며, 그는 奸臣들을 다 處斷하고

「時, 王在元, 國空虛, 齊賢措置得宜, 人賴以安.」

하였는데,

「嘗於拜表, 陞陞上行禮, 儀衛與王無異, 人識之.」

하였으니 그것으로써 그렇게 일렀음이었는지? 그리고 性與天道는 孔子도 잘 말하지 않았다는데, 近世에 와서는 初學에서도 「開口便說性理」 한다 하였으나, 益齋는 性理를 잘 말하지 않는다고 「不樂性理之學」 이라고 하였는지? 그 다음 牧隱李穡은 麗末巨儒로서 高麗史를 비롯한 朝鮮朝一代의 그에 관한 記錄을 全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明使祝孟獻에게 付託한 그의 碑銘까지 問題를 일으켰던 만큼 制約을 받아 바른 記錄을 할 수 없었음이라.

「王氏之亡, 人但知國隱治隱二人能成大節, 而不知牧隱之爲人, 可惜, 上受命之後, 召公至引見, 公長揖不拜, 上降御榻, 接以賓禮, 俄而, 待講以次列進, 上還陞御榻, 公昂然而起曰, 老夫無坐處, 上曰, 願承一教, 勿以寡昧而棄之, 公曰, 亡國之大夫, 不可以圖存, 但當將此骸骨, 歸葬故山而已, 遂出, 世傳公之死, 黯黯難明, 不愧國隱云.」

한 것처럼 記錄들이 다 區區하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좋지 않은 記事를 한 高麗史等 記錄에나, 그를 謀害하려던 李侍中(朝鮮太祖)派의 吳思忠·趙璞等 臺諫의 彈章에도 그의 儒家이었음은 다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十四歲에 이미 成均試에 合格하고 그 뒤 魁科에 뽑혔으며, 또 征東省鄉試第一名에 뽑혀 元朝의 廷試第二甲第二名에 또 뽑혔는데, 讀卷官杜秉彝歐陽玄等이 嘆賞하였고, 元朝의 翰林知制誥까지 지나고, 東還하여서 消要를 歷易하여 相位에까지 올랐으며, 恭愍王도 그와 李仁復을 召見한 때 左右에게 命하여 焚香 洒掃하게 하여

「二公道德, 非庸謚, 且穡學問, 舍肌膚而得骨髓, 雖中國亦罕比, 烏敢慢哉.」

하였으며 明朝의 太祖도 그를 禮待하였고, 明使들도 入境하면 그의 安否를 물었으니, 그의 重名을 可히 알겠는데 恭愍王十六年

「重營成均館, 以穡判開城府事兼成均大司成, 增置生員, 擇經術之士金九容鄭夢周朴尚衷朴宜中李崇仁, 皆以他官兼教官, 先生, 館生不過數十, 穡更定學式, 每日坐明倫堂, 分經授業, 講畢, 相與論難忘倦. 於是, 學者益集, 相與觀感, 程朱性理之學始興.」

하였으니.

「樸大資明敏，博覽群書，爲詩文，操筆即書，略無凝滯，勉進後學，以興起斯文爲己任，學者皆仰慕，舉國文翰數十年，屢見稱於中國，平生無疾言厲色，不露圭角，不治生產，雖至屢空，不以爲意，然志節不固，無大建白，學問不純，崇信佛法，爲世所譏。」

하였다. 그

「志節不固，無大建白.」

이라 하였음은 무엇을指摘함이있는지? 다만 王禕에게 師傅로서 極히 尊敬을 받았는데 그 狂謠한 것을 矯正한 바 없었음은 後人의 疑惑할 바이며, 「崇信佛法」은 그 父稼亭毅의 遺志로 印經을 하였으며, 王命으로 塔記等을 지었음이었는데, 그 뒤 文廟從享論이 일어날 적마다 佞佛이 그의 惟一한 累로 되었다. 그러나 그의 父喪에서 올린 上書中에 佛教過盛의 弊害를 말하여.

「中世以降，其徒益繁，五教兩宗爲利之窟，川傍山曲，無處非寺，不惟浮屠之徒寢以卑陋，亦是國家之民多於遊食，識者每痛心焉。」

하였으며, 「佛大聖人也」 한 말을 病 잡으나 「西方大聖」의 말은 그에서 비롯한 말이 아니며, 文殊大會에서 王이 率兩府禮佛하는데 李仁復과 그는 「至拜時輒出不拜」 하였으니 저評은 너무 苛酷하다. 그리고 圃隱鄭夢周는 그 忠孝大節과 學問의 純正함에 비록 平日不悅하던 者도 敢히 異說을 못하였다.

「夢周天分甚高，豪邁絕倫，有忠孝大節，少好學不倦，研窮性理，深有所得，太祖素器重，每分圖，必引與之偕，屢加薦擢，同升爲相，時國家多故，機務浩繁，夢周處大事決大疑，不動聲色，左酬右答，咸適其宜，時俗喪紀，專尚桑門，夢周始令士庶，倣朱子家禮，立家廟奉先祀，又以守令雜用參外吏胥，秩卑人劣，始選用參官有苗望者，嚴其黜陟，又以金穀出納，都司議司錄事自謹施行，事多猥濫，始置經筵都事，籍其出納，又內建五部學堂，外設鄉校，以興儒術，其他如立義倉賑弱乏，設水站使漕運，皆其盡也，所著詩文，豪放峻潔，有圃隱集行于世。」

하였다. 圃隱은 道學과 文章과 政治의 力量을 兼한 人으로서 위에 쓰인 以外에 法律도 修整新定하였으나 그의 殉節과 함께 麗朝는 끝나고 그 設施制定한 것은 다 鮮朝에 利用 되었으며, 또 그는 外交에 功績도 많아 日本에도 갔으며 明에도 여러 번 出使하였으나, 그의 學問은 中國에서 얻기 보다 또한 自學에서 이루어, 일찍이 三場에 連魁하여 宦路에 나서면서 後進의 敎育에도 功이 컸으니

「十六年，以禮曹正郎兼成均博士，時經書至東方者，惟朱子子集註耳，夢周講說發越，超出人意，聞者頗疑，及得胡炳文四書通，無不脗合，諸儒尤加嘆服，李穡稱之曰，夢周論理，橫說豎說，無非當理，推爲東方理學之祖。」

하였다. 즉 牧隱이 大司成으로써 師儒들에게 分經授業을 시키는데 그는 博士로써 講說하는 것을 보고 理學之祖로 하였음은 牧隱의 推許한 말이었는데, 그 뒤 儒學界에서 그를 理學之祖로 일컬어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그 뒤 朝鮮朝의 道學淵源은 다 그에서 내려온 것으로 하였다. 그 밖에도 宋學의 들어옴에 따라 儒學界에 新生面을 展開하여 楊若齋金九容・陶隱李崇仁等 많은 學者가 나왔으나 이에 다 叙述하지 못함. 陽村權近은 高麗末 그 聲望이 牧隱・圃隱에 다음 갔으며, 기울어진 麗朝의 運命을 붙들려고 하다가 流配도 되고 牧隱等 여러 名士들과 함께 淸州獄에 갇혀 죽을 번 하기도 하였으나, 朝鮮朝 開國後 節을 지키기 못하고 벽슬하여 大提學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는

「天資醇樸溫雅，深於性理之學，」

하였고 所著로 入學圖說・禮經에 관한 말, 性理에 관한 말도 있었으나 守節을 못하였다 고 板谷元天錫 같은 이는

「白首陽村談義理，世間何代不生賢，」

이라고 비꼬기도 하였으며, 士林派 즉 學界에서 그 學說을 돌아보려 하지 않아 後學에게 影響을 크게 주지 못하였다.

XXIII 朝鮮時代의 儒學과 士禍

朝鮮時代 學界의 潮流를 말하려면 먼저 그 社會情勢를 살펴야 한다. 麗末에 勃興하였던 儒學界에서는 人臣으로써 섬기던 君主를 죽이고 位를 篡奪한 朝鮮朝의 開國은 그들의 理念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도워 갖은 陰謀術策을 가리지 않는 勲臣派 그 중에도 牧隱의 門人으로써 師門을 背叛하여 죽이려 하고, 恩師의 아들들도 죽이고, 同門의 제주가 나온 陶隱李崇仁도 죽이고, 舊主(賤生으로써 그 옛 上典)의 집도 滅門시킨 三峰鄭道傳 같은 이를 더욱이 憎惡의 對象으로 하였던 터로 그들은 山林의 隱遁生活에 '自甘'하였으니 杜門洞七十二賢等이 그 한 例이었다. 그런데 世宗 같은 聖君이 나서 民生이 案堵되고 學問도 獎勵되어 그들의 마음도 누그러워졌는데, 또다시 어린 조카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世祖의 폐로 되어 그들의 理念과는 더더구나 背馳되어 死六臣이니, 生六臣이니 하는 분들이 있게 되는 反面, 義理를 돌아보지 않고 富貴功名만을 貪하고 누리려는 세 勲臣 및 戚臣들과 士林派의 對立은 自然形成되었던 것이었다. 그 다음 成宗은 學問을 좋아하고 신비를 사랑하여 士林派의 佔卑齋金宗直을 登用하여 刑曹判書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麗末에 牧隱・圃隱・陽村 三先生에게 師事하던 治隱吉再는 效法하여 仁賢로 있으면서 時局의 그릇됨을 보고 牧隱에게 去就之義를 물었더니

「牧隱曰, 當各行其志. 我輩大臣, 與國同休戚, 不可去, 爾則可去也. 再因定去就, 告歸辭於公, 公時在長湍別墅, 贈以詩曰, 飛鴻一箇在冥冥.」

하였다. 그래서 治隱은 老母를 養하고 故鄉 善山의 金烏山下에 住 있었는데

「初太宗在潛邸, 入學讀書, 公以同里閭, 相從講磨, 情義甚篤, 庚辰, 太宗在東宮, 與書筮官論逍遙之士, 乃曰, 吉甫剛直人也, 我輩同輩, 不見久矣, 正字田可植, 公同貫人也, 其言公在家孝行之美, 太宗喜, 下令三年府, 移牒徵之, 公堅臥不起, 州官督就道, 公乘傳至京, 太宗嘗曰定宗, 授奉常博士, 公不詣闕謝恩, 乃上書于太宗曰, 再於昔日, 得與殿下讀詩津宮, 今之召臣, 不忘舊也, 然再於辛朝, 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即歸于鄉, 若將終身, 今者託舊徵召, 再欲上謁耳, 從仕則非再志也, 太宗曰, 子之所言, 乃綱常不易之道也, 難以奪志, 然召之者吾也, 官之者上也, 告辭於上可也, 公遂上疏曰, 臣本寒微, 仕於辛氏之朝, 擢第至門下注書, 臣聞女無二夫, 臣無二主, 乞放歸田里, 以遂臣不事二姓之志, 孝養老母, 以終餘年, 定宗嘉其節義, 假禮以遣, 命復其家.」

하였으니 이 같은 忠孝가 具備한 先生의 弟子인 江湖金叔滋는 또한 孝行과 經明行修로써 이름이 높았으며, 江湖의 아들로서 父公의 學統을 이어 孝行과 學問이 優越한 분이 바로 佔畢齋였다. 卽

「圃隱傳之治隱, 治隱傳之江湖, 江湖傳之佔畢齋」

한 그것이 道學淵源이었다. 江湖의 윗대는 鄉吏로서 처음으로 進士에 올랐고 江湖를 인찌기 장가 들었다가 며느리가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쫓고 다시 장가들어서 佔畢齋兄弟를 낳았으며(前妻에도 아들들이 있었음), 江湖가 登科後 世宗朝 經明行修로 認定받았으나 그 前妻家側의 告發에 因해 臺彈을 입어 出妻한 理由로 여러번 落職되기도 하고 進途가 막혀 벼슬이 겨우 成均司藝에 그쳤다. 당시 서울에는 陽村의 外孫이오 文章으로 擅名하고 大提學인 四佳亭徐居正이 있건마는, 서울의 貴家子弟도 뜻 있는 이는 서울 출신이오 門地도 그렇게 볼 것 없는 佔畢齋에게 負笈하였으니 學統과 節行을 重視하던 당시의 學風을 엿볼 수 있다. 端宗朝 稱病棄官한(靖難禍後 首陽專權時) 生六畝의 한 문인 耕隱李孟專은

「金叔滋與公爲道義交, 晚年託病, 謝絕人事, 惟金宗直入謁, 則閉門心語, 或爲草堂記」

하였으니 當時의 社會相과 佔畢齋의 弔義帝文을 지은 動機도 여기에서 짐작된다.

「成宗朝, 金宗直啓曰, 成三問是忠臣也, 成廟色變, 宗直徐曰, 脫有變故, 則臣當爲成三問, 成廟色定.」

이라 하였다. 이로써 그가 弔義帝文을 지은 것이나, 그 門人인 溫毅金駟孫이 그것을 史

艸에 얹은 것이나, 厓軒權五福이 또한 世祖와 그 功臣들의 非行을 史艸에 썼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그 門人인 秋江南孝溫은 昭陵(文宗妃 端宗母后인데 世祖는 그를 追廢하여 宗廟에 神主를 없애고 陵을 파서 屍體를 물에 띄웠다)의 復位를 疏請하여 狂生의 指目을 받았으며, 따라서 世祖의 寵愛를 받았던 不正不義한 宰相들은 그들의 指彈對象으로 되어 혹은 上疏하여 그러한 大臣들을 奸鬼나 小人이니 指目하여 살아죽이라고 請하기도 하고, 世祖의 臣은 쓰지 말도록 請하기도 하고, 佔畢齋自身도 咸陽學士樓에 걸린 柳子光의 詩板을 떼서 붙대워버리는 등 하였다. 그러면 그런수록 熙成派에서는 그들을 미워하며, 浮薄하다고 指目하며, 猜忌하였으며,

「成廟始建環翠堂，命詞臣作記，使公科次(公은 佔畢齋를 가리킴이니 그때 左承旨였다 함)，徐居正之作，僅點三下，餘皆塗抹，上改命公記之，一揮而就，文不加點，上極加嘆賞，掛諸楹間，居正典文衡二十六年不辭退，一日問族姪曰，外謫以我爲如何，對曰，皆嫌其久典文衡，居正憮然曰，我遷則金宗直必爲之，蓋惡之也，或曰，戊午之禍萌於此。」

하였다. 그래서 佔畢齋는 大提學을 못하였고 辭職下鄉한 後 四佳는 文衡을 내놓으면서 虛白堂洪貴遠을 推薦하니 物議가 譁然하였다 하며

「公之父叔滋學於吉冶隱再，一時之士稍有可稱者皆受業於公之門，李承健爲翰林，書之史曰，南人互相吹噓，師譽弟子，弟子譽師，自作一黨云，李克墩見承健史艸，每稱直筆。」

하여 이 같이 南人 卽 嶺南系의 士林派와 서울系의 熙成派의 對立現象이 일어났다. 佔畢齋는 弟子들에게 資稟에 따라서 가르쳤으니 寒暄堂金宏弼에게는 小學을 가르치면서 「光風霽月皆在此中」하였고, 濯纓金駟孫에게는 韓文을 가르쳤다. 寒暄堂은 小學 童子로 自稱하고 小學之道를 實行하고 同門인 一蠶鄭汝昌과 같이 性理學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濯纓은 文章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 누구나 다 時事에 慷慨하여 過激한 품은 一般이어서 寒暄堂과 篠叢洪裕孫은 스승인 佔畢齋를 建白한 바 없이 空然히 爵祿만 取한다고 하여 行圓而惡方과 行獨而不恤하는 老佛의 行과 같다고 드러내어 「自是貳於畢齋」 즉 스승과 틀리기도 하고

「公大惡之，自是每稱餘慶譌詐，公亦自晦行。」

즉 스승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時局을 悲觀하여 위에 보임과 같이 老莊學派처럼 逍遙巾을 쓰고 竹林七賢을 模倣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士風으로 士禍의 일어날 것도 憂慮하였다.

「辛永禧側微不羈，多大節，出世俗科臼外，寒暄金宏弼嘗謂曰，觀今士氣，且類東漢之末，朝夕輒起，謂石連遇，公忽引去搜山斜山下，與南孝溫洪裕孫輩爲竹林羽士，文章行義爲一時領袖，構小堂，

屈曰安亭。」

하였다. 그래서 蛇山別曲을 노래하며 기넌었다. 또 安亭의 門 師友言行錄에는:

「大猶(寒暄堂의 字)嘗責予曰, 於君, 已欲絕交, 而情不忍云, 問之則曰, 非君能斷也, 迫問之則曰, 伯恭(秋江의 字)·百源(茂豐正 德의 字)·正中(秀泉正 貞恩의 字)·文炳(許榮의 字)皆有晉風, 晉以清談累, 不出十年, 禍在此輩, 余誓自今, 不復來往, 後皆不保。」

하였다. 이는 아마 東漢과 같다고 나무랜 뒤 또다시 竹林놀이 등 晉風을 模倣하므로 거듭 警告하였음이었으리라. 그 結果安亭은 免禍하였고 秀泉正도

「~~出其舊習~~, 故作俗態, 閉門不出, 不敢與故舊通, 果獨傑!」

亦是免禍하였다.

「金宏弼訪辛永禧曰, 禍將起朝夕, 如我固不免, 請君速遁鄉曲, 遂歛相絕. 南孝溫病革, 宏弼往問之, 孝溫拒不相見, 宏弼排戶而入, 孝溫面壁而臥, 無一語與訣, 蓋絕宏弼也, 噫, 宏弼之欲絕永禧, 孝溫之欲絕宏弼, 時事艱危, 有非哲人不得免者耶!」

하였다. 자기는 이왕 죽지마는 자기와 친히 지냈다는 理由로 그 친구도 禍를 당할까 보아 마지막 永訣도 拒絶하고 對面하지 않았던 그 心情, 실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士林을 위하여 또 親舊를 위하여였음이었고, 自身의 禍福에 對하여서는 泰然한 바 있어 當然히 行할 바를 行하였다.

「公(寒暄堂)與一瀛鄭汝昌, 志同道合, 特相友游, 研磨道義, 商確古今, 或至遠曙, 汝昌嘗以謗議將騰, 勸止公衆徒游學, 公不聽曰, 釋道行設教, 其徒千餘人, 或止之曰, 禍患可畏, 行曰, 使先覺後覺, 先知覺後知, 以吾所知者告人耳, 禍福天也, 吾何與哉, 行雖繇流, 其言可取也, 學於公者, 如靜庵趙光祖琴軒李長坤思齋金正國皆高弟也!」

寒暄堂의 이 같이 禍福에 關心하지 않고 門徒를 養成한 힘으로 道學의 淵源이 깊어지지 않았음이였다. 그들의 憂慮하던 그대로 올 것이 왔다. 成宗이 升遐한 뒤 濫虐하기 古今에 類例 없는 燕山主를 利用하여 柳子光·李克墩·尹弼商 등의 일으킨 戊午史獄의 慘酷狀은 또한 史上에 드문 바라. 估畢齋처럼 이미 죽은 이에게는 剖棺斬屍·碎骨暴風等·살아있는 溫櫻·睡軒等 多數人士는·周牢·亂杖·斷筋刑·凌遲處斬等 蠻刑을 恣行하였으며 그들 人士의 門人·關聯者·親族等 輕刑이라야 流獄이었다.

「及定罪之日, 晝晦, 雨下如注, 大風從東南起, 拔木飛瓦, 城中人庶, 莫不顛仆股慄!」

天候까지 사람들의 慘怛戰慄하는 恐怖感을 더하게 하였다.

「子光意滿氣得，揚揚而歸家，自是，威行中外，朝廷視之如毒蛇，莫敢忤其意，『儒林喪氣，重足側目，學舍蕭然，數月間，無有讀誦聲，父兄相戒曰，學足以應科舉則止，何用多爲。』」

이 可히 奸臣의 得意와 士林의 失氣하였음을 알겠으며, 더욱이 「學足以應科舉則止」 즉 學者의 理念에 背馳되는 科文工夫만이 容許되는 現狀이었다.禍는 그로써 그치지 않고 잇따른 甲子士禍는 또한 熙成派의 한 奸臣인 任士洪의 慫慂로 燕山의 母 尹廢妃의 廢黜 및 賜死되었던 인을 들추어 일으켰던 까닭에 君主의 뜻에 阿諛하였던 熙成派의 巨物들도 當하였지마는 學者를 미워한 暴君과 奸臣은 廢妃의 일에는 無關한 人士라도 戊午禍에 빠진 生存者는 모조리 不免하였다. 中宗의 反正後 燕山의 虐政을 다 뒤쳐 學者들을 불러 올리고 優待하며 言論도 比較的 自由로이 하게 된 바람에 陋習에서 寒喧堂까지에 이르는 學統을 이었다는 靜庵을 비롯하여 冲庵金淨・沙西金湜・自庵金絳・服齋奇遵等 一代의 青年名士들이 모두 朝廷의 要職에 물리 들어 政治의 改革・政界의 淨化・民風의 矯正 등에 熱을 올려 堯舜君民의 그들 理念을 實現하려고 때로는 過激하게 나가 君主의 심어 함에도 不拘하고 強行하였으니, 그 中에서도 靖國熙 즉 中宗을 받들고 反正한 錄熙의 過濫과 不正한 것을 削除是正하여 食利하는 根源(事實에 있어서 麗末에 太祖의 威化島回軍을 하고 王禕와 王昌을 죽인 功과 太祖를 받들어 即位하도록 힘썼다는 開國熙과 太宗兄弟間의 內亂 즉 芳蕃・芳碩等を 죽이고, 芳幹을 이겨내어 太宗을 받들어 即位하도록 힘썼다는 定社熙・佐命熙・金宗瑞等 많은 朝臣을 殺害하고, 世祖를 即位하도록 하고, 死大臣들을 죽이는데 힘썼다는 靖難熙・佐翼熙・南怡等を 죽인 翊戴熙・成宗을 받들어 即位하도록 하고 宗室龜城君浚을 몰아낸 佐理熙等 그 어느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것이 없으며 歷代君主는 그들로 인하여 王位와 國命이 維持되어 나가며, 그들만이 가장 忠誠스러운 臣下인 줄로 생각하여 왔다. 靖國熙은 그렇지 는 않으나 請謁과 賄賂等으로 當錄하지 못한 것을 濫錄한 것이 많고, 錄熙은 原則적으로 三等 뿐인데 四等까지 하였다는 것이라)을 밝히려던 일(二・三等の 不當錄者와 四等全員을 削除하였으나 士禍後 還錄하였음)・昭格署를 廢한 일・女樂을 廢한(公娼廢止) 일・科弊를 是正하여 人格을 重視하는 推薦과 資格考試를 並行하며, 그 考試도 詞賦로 하지 않고 對策(政治論文)으로 하는 賢良科의 實施(賢良科도 그들의 最高理念은 아니었으나 時代事情을 考慮한 것임)等 많은 革新策을 써서 士類의 意氣가 크게 올랐으며, 民衆의 支持도 대단하였으나 熙成 및 道學을 싫어하고 詞賦等を 좋아하며 保守的이며 奸貪한 무리들은 이를 미워하였을 것은 無論이라. 靜庵이 처음 造紙署司紙로 被聘하였을 때

「一部小學須勤讀，司紙功名自然來。」

라고 비꼬는者也 있었으며, 그들의 革新施策에 對하여

「此輩，不有人禍，必有大殃。」

이라고 論評한 宰相도 있었으며 靜庵等의 科擧 功利가 一般民衆의 人氣를 일게 됨이 도리어 構陷의 資料로 되었다.

「時，南養沈貞以傾竊得罪士林，欲革而以托前流，而士流終不與，故懷恨未發，及趙光祖爲大憲，執法平允，人皆感服，每出，市人羅伏馬前，曰吾王典至矣，養等輩以得人心爲孤語。」「養貞以洪景胤曾爲贊成而被論，常懷恨恨，遂與交通，使景胤教其女熙嬪，以爲一國人心悉歸趙氏，日夕啓達，以播上志，且由蘇好蝕木實之甘汁，故以其汁寫走肖爲王四字於禁苑木葉上，由蘇潤融成痕如字畫，有同符讖，採以上聞，以惑之，貞又誘敬嬪朴氏問安婢，以謂趙氏專國，人皆稱善，使若閭閻聞語，傳播於宮禁，使上心危懼，然後景胤持諺書，指爲密旨，言於被屈宰相，約定期會。」

한 것이 己卯士禍를 일으킨 動機 및 經過였다. 大概 好人이 相對方인 正人들을 謀陷하는 方法은 宮中 즉 妃嬪이나 宦寺들을 움직여서 行하며, 또 그 手段으로는 逆謀 즉 王位를 도모한다고 어리석은 君主의 疑懼心を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削熙을 한 것은 임금의 羽翼을 削除하여 임금의 勢力을 弱화시키려는 것이오, 賢良科를 施行한 것은 趙光祖等이 저의 黨派를 扶植하여 勢力을 強化하려는 手段이라고 어리석은 中宗을 퍼서 일으킨 것이 己卯士禍였는데, 大臣鄭光弼・安瑒等의 努力으로 처음은 큰 禍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러한 賢相들이 물려 나가자 靜庵以下 全士이 賜死되고 또 쫓겨나간 安瑒相公의 아들 安處謙의 慷慨한 閒談을 가지고 安瑒妻喪時 弔客錄과 發引役軍簿을 逆賊謀議 및 叛軍을 일으킬 文書라고 꾸며 安瑒을 비롯한 己卯獄에 빠진 人士들을 죽인 것이 辛巳獄 즉 己卯의 餘震이었다. 이 結果 心性理氣의 說은 勿論이오 或 小學之道나 正心誠意等 말을 하는것은 己卯餘震이라고 몰아대어 士氣의 失墜는 말할 수 없었다.

②

XXIV 士禍의 連續과 儒林.

朝鮮朝에서는 表面上 崇儒政策을 썼으나 儒敎學者의 말은 施行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서서 바른 말을 하여 政治改革을 하려면 大量虐殺을 하는 것이 士禍다. 太祖開國時 圃・牧・陶 等의 當한 禍가 무서리라면 世祖 篡竊時의 靖難禍・大臣獄・鎭城獄等은 뒤서러의 거듭 친 것이겠고, 燕山朝의 戊午・甲子等 士禍・中宗朝의 己卯・辛巳等 士禍와 다음에 오는 明宗朝의 乙巳士禍等은 눈보라 치고 얼음어는 형상이었다. 積雪堅氷의 밑에서 보드라운 삭이 터져 나오듯이 大學者는 輩出하였다. 더욱이 嶺南地方은 新羅朝의 薛聰・崔致遠을 비롯한 名儒文士가 다 여기서 나왔고, 高麗朝에도 國初以來 崔冲等 몇 분 以外에는 嶺南出身이 많았고, 그 末期의 晦軒・易東・益齋・牧隱・圃隱・惕若齋・陶隱・治隱等

다 이 地方 사람이었고 朝鮮朝로 되면서부터 中宗朝까지에 靜庵等 몇 분 以外 큰 學者는 거의 嶺南出身이라. 아마 그 遺風餘韻이 남아 있었음이었는지 靜庵等 諸賢의 뒤에 일어난 여러 學者中에서 儒教哲學인 心性理氣論・無極太極論에 對한 論說로서 들어난 이는 北의 開城地方에서 일어난 花潭徐敬德・南의 慶州地方에서 일어난 晦齋李彥迪 두 先生이 겠고, 그 두 분의 學說을 綜合折衷하여 最終斷定을 내린 이는 退溪先生이라 하겠다. 花潭은 처음부터 仕宦에 뜻을 두지 않고, 一生을 學究로써 終始하여, 일찌기 親命으로써 司馬試에 合格한 뒤 나가지 않아, 中宗己卯 賢良科薦에 올랐으나 또한 나가지 않았으며, 그 뒤 또 慕齋金安國 및 館學儒生の 薦으로 厚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또한 일어나지 않았고, 晦齋는 世道 즉 政治를 바로잡으려는 뜻을 두어, 일찌기 小科 및 大科에 連登하여 司諫으로 되었을 때 朝廷議論이 東宮의 孤危하므로 金安老를 불러들이려 하였다. 東宮은 곧 다음의 仁宗이니 中宗妃 端敬后尹氏는 仁宗을 낳고 죽었고, 後娶로 들어온 文定后尹氏는 性質이 사나웠고 그 아우 元老・元衡 등은 또 極히 惡毒하여 恒常 東宮인 仁宗을 謀害하려하는데 東宮은 天質이 極히 聰明하고, 어질고, 효성도 至極하니 士林에서 屬望하고 따라서 그 孤危함을 걱정하던 터이며, 金安老는 文筆之才가 있어 生・進 및 文科의 壯元에 잇달아 올랐으며, 東宮의 누이 孝惠公主의 시아비인 卞瓘에 謁擧되었다가 南僣에게 쫓겨 귀양갔더니, 이 때에 그는 아들 延城尉瓘을 시켜 己卯士類를 다시 쓰려고 하는 朝臣들 사이에 士類를 調停시키겠다는 말과 保護東宮說을 퍼뜨리니 朝臣들은 그 말에 感하여 다시 불러들이려 하였다. 晦齋는 그의 奸詐함을 말하여 東宮은 一國臣民이 함께 만들지요, 安老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朝臣들은 불러들여도 權柄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하므로 晦齋는 安老가 들어오면 곧 政權을 잡아 朝廷을 濁亂하게 하여 막기 못하리라 하였다. 朝臣들은 도리어 安老의 들어움을 妨害한다고 晦齋를 내쫓았다. 安老는 果然 들어오자 政權을 잡아 朝廷을 濁亂하게 하고, 여러 번 大獄을 일으켜 士禍를 꾸미다가 中宗이 깨어나 내쫓아 賜死한 다음 晦齋를 불러 올려 重用하였다. 晦齋는 前後 外職에 있어서는 善政으로써 이름이 높고, 清白吏로도 뽑혔으며, 畿省에 있어서는 日夕에 忠言嘉謨로써 君心を 啓沃하고 治道を 밝혔다. 더욱이 그의 全州府尹時 올린 一綱十日疏에는 中宗이 極히 感嘆하고 東宮에게도 보였다. 그러나 中宗末年 時局은 더욱 昏迷하였다. 東宮인 仁宗을 위하려는 仁宗의 외삼촌되는 尹任과 文定后의 남편 慶原大君 즉 장례 明宗의 외삼촌 되는 尹元衡兄弟와의 사이에 벌어진 즉 大카・小카의 暗闘가 그것이었다. 政局은 晦齋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는 病으로써 歸郷하여 老母를 만났고 있었다. 그리자 仁宗이 即位하여 左贊成으로 올랐다. 晦齋는 또 病辭하였으나 仁宗은 醫藥을 보내고

「往年, 先王賜觀卿疏, 固歎服, 且於書籠, 閱講說, 予爲卿留意久矣。」

라 하여 「調病上來」를 下諭하였으므로 올라갔으나 仁宗은 얼마되지 않아 升遐하고, 어린 明宗이 即位하자 文定后가 大王大妃로써 垂簾聽政을 하였다. 그는 政府에서 瓘啓十條를 올렸다.

「一, 請慈殿遊養聖躬. 二, 請博選經筵官, 講論遊處, 以盡聖學. 三, 請殿下於大行有子道, 有臣道, 喪禮不可不盡誠孝. 四, 請嚴宮禁防戚里. 五, 請慎擇宮人, 六, 請勿用特旨. 七, 請勿用判付. 八, 請政院出納惟允. 九, 宮中府中當爲一體, 請勿開私門, 以昭平明之治. 十, 冒大行大王學問之教, 公道大行, 人願至治, 奄至斯極, 國人方以望於大行者, 望於殿下, 其機甚重, 願留神焉.」

하였다. 元來 仁宗은 위에 보인 바와 같이 東宮에 있어서 仁孝와 學問이 뛰어났고, 即位後에도 升遐한 父王에게와 繼母인 母 文定后에게 誠孝가 至極하였으며, 백성을 極히 사랑하고 處理가 다 正當하였으며, 升遐할 때에 당하여 趙光祖等 己卯名流의 職牒을 選給하게 하고, 賢良科도 選給하게 (己卯禍後 罷科를 하였다) 하고, 아우 慶原大君에게 傳位하였다. 그러므로 在位八個月도 차지 못하였는데 士林派는 勿論이오 백성들도 슬퍼하였다.

「初, 上養德東宮, 聖德夙成, 動遵規法, 日與儒臣, 講論古書, 夙夜不懈, 一時士類, 修飭於家, 爲他日進用之計, 拭目以待, 儒風大進, 人稱少年堯舜之君.」

이것이 士林派의 期待였었다.

「上有上聖之資, 毓德春宮三十年, 及即位, 中外以爲太平之治可見, 遽爾禮陟, 都中士庶填咽號哭, 痛如私親, 遐方僻鄉儒生以至庶人, 哀慟奔哭於闕下者相繼, 期月之間, 其德澤感人之深如此. 求之於古, 實所罕聞.」

이는 一般의 슬퍼함이었다. 그러는 一面 이 임금의 죽기를 祈願하던 者도 있었다.

「時, 元衡圖竊國柄. 及上即位, 莫敢售其奸. 嘗點燈佛社. 祈聖曆之不延. 又於木覓山. 夜有燈燭之光. 有人潛伺之. 元衡手自焚香點燈. 頂禮神座. 祝辭凶慘不忍聞. 又於宮中. 埋木偶人. 爲媚道壓勝之術.」

그 妖邪凶毒한 품을 알 수 있다. 仁宗의 東宮에 있었을 때 東宮의 門을 밖으로 잠그고 불을 지른 일도 있었으며, 灼鼠의 壓勝之術을 한 일도 있었다.

「仁廟誠孝出天, 而文定少無保護之心, 灼鼠之變, 談之於朴淑儀, 併其子賜死, 人皆冤之, 丁亥二月二十六日, 東宮亥地, 壓一灼鼠, 以水插木片作榜書, 並掛之, 是時, 仁廟居東宮, 仁廟亥生, 而二月二十六日乃誕辰, 亥屬猪而鼠類猪, 時議以爲東宮詛呪也, 宮中指朴嬪所爲, 其侍女及唐城尉洪爾奴僕多被杖死, 亦有誣服者, 故至於賜之自盡.」

이는 文定의 所爲임을 보인 말이다. 東宮을 죽이려는 치방을 하여 놓았다가 發現되자 朴敵 朴嬪에게 덮어 써워 죽이고 그 아들 福城과 사위들까지 죽였는데, 그 뒤 仁宗이 힘들자 父王에게 懇惻한 上疏를 하여 그 두 누이와 조카들을 풀어낸 일도 있었다. 따라서 尹元衡의 그 치방도 文定의 뜻을 받아 行한 것임은 말한 것 없다. 그러니 仁宗의 升遐는 그들의 所願成就였다.

「小尹等類彈冠相賀，揚揚自得，成服之日，百官班立，尹元衡李芑趨而入，校理丁煥望見奮罵曰，觀此風氣色，痛莫甚焉。」

尹類의 痛恨할 일은 그뿐 아니었다.

「禮部使李芑進定發引於十月十五日，以輟葬故也，趨附於芑者和而唱之，國人駭憤，欲食其肉，老民三十餘人痛哭拜送街路，時，李芑等氣焰方熾，人莫敢出聲以哭，故史氏見老民之哭，悲而記之。」

즉 文定의 뜻을 받은 李芑는 仁宗을 未踰年之君이라고 不可用大王之禮라 하여 當時法制인 五月葬을 하지 않고 翌月而葬을 하여

「以薄於仁宗，爲媚悅之計。」

하여 丁煥·尹潔 等の 反對上疏도 듣지 않고

「乙巳權奸，以上爲未踰年之君，減殺喪禮，山陵工役亦多不謹，宜廟戊寅十月，命修改孝陵，乃夷其封，改安石屏等物。」

또 그리고 神主도 나라의 宗廟인 文昭殿에 받들지 않고 임금으로 되지 못한 追封王을 받드는 延恩殿에 받들어 太學生들이 疏論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가 이도 宣祖朝에 고쳐졌다. 그러고 보니 晦齋의 諫啓十條에 大行의 喪禮에 誠孝를 다 하도록 말함이 이를 豫見한 듯하며, 殿宮禁·防戚里·勿用特旨·勿用判付·政院의 出納惟允·宮府一體·勿開私門等說은 다 尹元衡等の 不法한 邪逕으로 士禍를 일으키고 政治를 濁亂하는데 對한 豫防線을 친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 尹元衡은 尹任이 仁宗의 大漸時 介弟인 明宗을 받들지 않고 仁宗의 庶從兄인 桂林君瑠에게 王位를 傳하도록 하려고 仁聖王后(仁宗의 妃로 尹任에게는 甥姪婦이며 또한 聖德이 있었다 함)에게 연락하는 諺簡을 偽造하여 仁聖后寢殿 앞에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줏게 하여 文定后는 그것으로 元衡에게 密旨를 내려서 元衡은 그 密旨를 가지고 大司憲閔齊仁·大司諫金光準을 시켜 臺諫들을 호리 인을 물리 하였으나, 臺諫들은 그것이 士禍의 伏線이요, 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짓임에 限死反對하였으니, 이에 元衡은 그 派의 奸臣들과 告變을 하여 文定은 明宗을 타리고 忠順堂에서 判書以上을 命招하여 文定은 「天威震歷」 즉 독살을 피우고, 小尹

派의 宰相들은 阿諛하는 助言을 하였다.

「申光漢(右參贊)曰, 上新即位, 危疑之際, 不可不鎮定人心, 任等罪咎可斟酌.」

하여 寬大한 處分을 받았다.

「李彥迪曰, 事必光明正大, 不然, 恐士林多有橫罹者.」

하여 密旨의 不正을 비치고, 士禍를 念慮하였다.

「大妃敎曰, 生禍士林, 非所可疑也.」

라고 그 念慮하는 마음을 놓쳤다.

「彥迪又曰, 今者一國大小臣民, 皆一心仰戴, 無敢有邪念, 罪一尹任何難, 而內旨不下政院而下于他處, 事不明白, 故人心不靖, 何必如是, 且人臣之義, 當專於所事, 當彼時專心於大行王者, 到今豈宜深罪, 今主上於王大妃, 親則嫂叔, 義則母子, 有未安者, 則恐累聖德, 涕泣橫流.」

아무 不安할 일이 없는데 密旨를 元衡에게 내리운 잘못과 「專於所事」한 大尹派의 無罪함을 말하고, 또 仁聖王后에 未安한 것을 못하도록 눈물로써 말렸다. 이때 元衡等은 仁聖后도 어떻게 措處할 생각이었다. 文定은 士禍의 念慮는 말도록 거듭 위로하고, 尹任의 罪狀을 말하였다. 이에 冲齋權擧(右贊成)은 大小尹說의 잘못임과 王位不安의 없음과 太公至正으로써 初政에 人心을 얻도록 勸告하였고, 小尹派인 鄭順朋이 輕重을 가려 罰하도록 請하여

「於是, 尹任竄星州, 柳灌遞, 柳仁淑罷.」

比較的輕罰로 되었다. 柳灌의 號는 松庵이니 仁宗朝 相位에 올랐고, 柳仁淑의 號는 靜叟니 吏曹判書로서 다 仁宗에게 忠誠을 다하였고, 士林의 支持를 받았던 만큼 元衡 等의 가장 嫉視하던 바라.禍는 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前日 元衡의 指喚을 안들었던 諫諍들은 避嫌啓를 올려 그 不正을 말하고, 默納인 休庵白仁傑은 獨啓로써 密旨의 不正을 攻擊하자 이에 벌은 加重되어 謀危宗社의 罪目으로 任絶島安置, 灌仁淑中道付處, 金儲削, 宋希奎以下 罷職하였다가 다시 尹任南海·柳灌舒川·柳仁淑茂長으로 竄配되고 仁傑은 下獄되었다가 原情放送되었고, 李芑는 右議政으로 林百齡은 吏判으로 小尹政權을 確立하였다. 이에 冲齋는 다시 狀啓를 올려 極言하였다. 企齋申光漢은 그것을 말했으며 晦齋도 그 啓草를 보고

薦曰, 勢已至此, 言之徒惹起不測耳, 奚益, 遂盡抹去其危言處, 撥却坐抱膝長嘆曰, 刪改如此,

不如不爲之爲愈也。」

大禍는 벌어졌다. 晦齋가 그 같이 刪削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柳濯以下 수많은 人士가 賜死 또는 獄死 및 流配되고 李芑·尹元衡·鄭順朋 等 그 一派는 衛社勲으로 策定되었으며 晦齋·冲齋도 다 忠順堂入對諸臣이므로 勲錄에 參與되었으나 晦齋는

「非但有譔於一時，亦且傳笑於萬世。」

라고 上疏辭勲하고 冲齋도 그와 같이 辭勲하고 두 분 다 辭職歸鄉하였으나 그들을 奸人들이 그대로 둘 理 없었다.

「李彥迪慶州人，權潑安東人，一時被拿，同到忠州，李延慶在館灘，往見李公，則愀然不樂，以國家危亡爲憂，及見權公，大笑迎入曰，李贊成權贊成一時並到，何其赫赫哉，略無憂色，延慶謂人曰，李憂國，至死不忘，權禍福都忘，可謂兩得之矣。」

二公의 性格이 이로써도 드러났다. 己卯獄에 다른 분은 泰然히 詩를 읊고 술을 마시는데 靜庵은 痛哭하면서 「欲見吾君，吾君豈至如是」하였음과 비슷하다. 晦齋는 江界로 冲齋는 朔州로 定配되었다. 晦齋는 謫中에서도 나랏일 걱정으로써 將來 임금이 보고서 修德治政하는 參照로 하려고 進修八規와 九經衍義를 지었다. (九經衍義는 未完成). 士禍는 告變에 告變이 잇달아 鳳城의 獄·丁未壁帖의 變·李洪胤의 獄·戊申安名世의 獄·己酉李洪胤의 獄·庚戌李滄의 獄 等 六年間 繼續하여 士林이 恐怖에 떨었더니, 明宗은 即位時 너무 어렸으나(十二歲) 그 뒤 억울한 선비들이 많이 죽었음을 깨닫고 親政한 後는 士禍가 停止되었고, 그 十九年 母后의 升遐後 尹元衡을 내어 쫓고 東阜李浚慶을 大相에 任命하여 國政을 맡기게 하여 朝野相慶하였다 하며 明宗이 아들 없이 急逝하매 東阜는 明宗의 조카 宣祖를 받들어 뒤를 잇게 하여 尹元衡의 지지른 弊政을 一新하고, 乙巳禍中 生存한 名士들을 다 불려올려 不次擢用하게 한 다음 己卯禍의 靜庵을 비롯하여 여러 名士禍의 名流들을 다 伸寃復爵贈諡하고, 尹元衡 等の 罪人 衛社僞勲도 追削하고, 南養以下 群奸의 官爵을 追奪하고, 貪汚한 戚臣들을 몰아내어 政界가 비로소 一時清明하여졌으니, 이 이른 바 穆陵初政(穆陵은 宣祖陵號 즉 宣祖朝란 말)이라.

XXV 道學과 徐花潭

그런데 新羅의 薛崔二公은 著述의 傳함이 적어 그 道學의 範疇를 잘 알기 어려움은 위에 말한 바있으며, 麗初의 崔冲 또한 그리 하였고, 麗末諸賢은 그 道學가 더러 傳하나 道學에 關한 面은 반로 보이지 않는다. 理學之祖로 推諉되었던 固隱 같은 분도 아마 國事に 映曄하여 道學에 關한 著述에 거론하지 못하였는 듯하며, 陽村은 當時부터 士類의

肯定하지 않는 바로 되었음도 위에 보인바요, 佔畢·寒喧·一蠶 등은 禍를 當할 時에 作品을 家人이 竊에 넣어버렸고, 더욱이 佔畢齋의 畧은 그 文集을 編次한 이와 刊行한 이와 간직한 이도 다 罰을 입었으며, 懸板한 것은 다 떼어 없애버렸으나, 그 前에 刊行되었던 砵畵에 거의 그대로 傳하였지마는 亦是 道學에 關한 面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退溪는

「金宗直非學問底人，終身事業只有詞華上，觀其文集可知。」

하였다. 花潭과 晦齋에 이르러 비로소 心性理氣의 學說을 세웠다 할 수 있다. 花潭은 前受한 바 없이 一生을 獨學獨思로 나갔다.

「年近志學，始知讀書，松京有一講書者，先生從而受尙書，至卦三百，講書者不肯授曰，此非但君所不學，舉世鮮曉者，先生怪之，退而精思，十五日通之，乃知書之可以思得也。」

즉 스승을 얻지 못하여 思索으로써 透得하였다.

十八讀大學，至致知在格物，慨然嘆曰，爲學而不先格物，讀書安用，於是，盡書天地萬物之名，付於壁上，日以窮格爲事，究一物既通，然後又究一物，方其未窮也，臨食不辨其味，或累日不睡，有時闔眼，則夢中通其所未窮之理。」

이 같이 그의 學問은 主로 思索에서 얻었다. 어릴 때 종달새의 나는 것을 累日研究하였다는 有名한 이야기가 있었듯이 그의 學究의 天稟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思索太過，至於成疾，不能出戶，雖欲不爲思索，不可得也。」

하였다. 所著로 太虛說·原理氣·死生鬼神論 등이 있는데 여기에 그 學說全般을 紹介하지 못하나 그 하나를 든다면

「太虛淡然無形，號之曰先天，其大無外，其先無始，其來不可究，其淡然虛靜，氣之原也，彌漫無外之遠，逼塞充實，無有空闕，無一毫可容間也，然，挹之則虛，執之則耗，然而却實，不得謂之無也，到此田地，無聲可耳，無臭可接，千聖不下語，周張引不發，邵翁不得下一字處也，撫聖賢之語，泝而原之，易所謂寂然不動，中庸所謂誠者自成，語其淡然之體，曰一氣，語其混然之周，曰太一，濂溪於此不奈何，只消下語曰，無極而太極，是則先天。」

이렇게 氣로써 說明하고

「氣之源，其初一也，既曰氣一，便涵二(二는 陰陽·動靜)，太虛爲一，其中涵二，既二也，不能無闕闕無動靜無生克也，原其所以能闕闕能動靜能生克者，而名之曰太極，氣外無理，理者氣之宰也，所謂宰，非自外來而宰之，指其氣之用事能不失所以然之正者，而謂之宰，」

하여 理은 氣中에 包含시켜 主宰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死生人鬼，只是氣之聚散而已，有聚散而無有無，……雖一草木之微者，其氣終亦不散，況人之精神知覺，聚之大且久者哉，形魄見其有散，似歸於盡沒於無，此處率皆不得致思，蓋人之散也，形魄散耳，氣之淡一消虛者，終亦不散，散於太虛淡一之中，同一氣也，其知覺之聚散，只有久速耳，其氣終亦不散，何者，氣之淡一消虛者，既無其始，又無其終，雖一片香燭之氣，見其有散於目前，其餘氣終亦不散，烏得謂之盡於無耶。」

하여 形魄은 흩어지되 一氣는 長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物質不滅의 原理로 본다면 좀 模糊한 感이 있다. 이에 對하여 退溪는 奇妙하다고 評하면서

「揆諸聖賢說，無一符合處。」

라 하고 「指氣爲性之誤」를 말하였으며 栗谷李珥는

「理無變而氣有變，元氣生生不息，往者過來者續而已，往之氣已無所在，而花潭則以爲一氣長存，往者不過，來者不續，此花潭所以有認氣爲理之病。」

하여 一氣長存을 否認하며 또 退溪는

「花潭，其質似朴而誕，其學似高而實駭，其論理氣處，出入連累，全不分曉。」

하였고 石潭日記(栗谷著)에는

「明廟朝，贈敬德戶曹佐郎，宜廟朝，請加贈，朴淳許暉是其門人，故主論尤力，上曰，敬德所著書，予取而觀之，則不及於修身之事，無乃是數學耶，且其工夫，多有可疑處，李珥曰，敬德之學出於「橫渠，其所著書，若謂之洽合聖賢之旨，臣不知也，深思遠詣，多自得之妙，非文字言語之學也，「上遂命贈右議政，諡文康。」

또

「許暉以尊敬公，以爲可繼箕子之統，聞余論敬德之學出於橫渠，責余曰，君言如此，僕所深憂，若曰，花潭之學，兼邵張程朱，則可矣，君專心讀書十餘年後，可論花潭地位，余曰，恐我讀書愈久，而愈與公背馳也，先是，暉謂退溪曰，花潭可比橫渠，退溪曰，花潭所著，何書可比正蒙，何書可比東西銘，暉無語，至是，論張益深，可謂不知而妄言也。」

이 같이 그의 門人인 草堂과 門人 이닌 栗谷의 觀點이 서로 다르다. 이랬든 花潭의 學은 師傳을 받은 바 없이 思索에서 自得하여 佛家의 禪定에서 頓悟를 인음과 비슷하여 古人的 行爲가 아니었다 그 評價는 後人에게 기다릴 바라.

XXVI 李晦齋의 學問

晦齋에 對하여 退溪는

「若吾先生，無授受之處，而自靜於斯學，闇然日章，而德竹於行，炳然特出，而言至于後者，求之東方，殆鮮有其倫。」

으로 말하였고, 그 門人인 蘇齋盧守愼도 「三韓心學，惟先生有之。」로 말하였으며 宣祖의 即位時 明使 許國・魏時亮은 學問을 좋아하여 「東國亦有爲孔孟心學者乎」하는 물음에 對하여 退溪는 晦齋의 太極書を 보이게 하였다. 그래서 宣祖는 그 遺書를 搜訪하게 하여 印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晦齋는 비록 授受處가 없었다 하나 花潭과는 같지 않아

「孫夫人貴有識慮，不以慈愛弛教督之方，飢令就學於舅氏孫吏判仲敬，又資貧窮，資給遠通。」

하였으니 孫夫人은 晦齋의 母이오(晦齋의 十歲時 父喪을 당하였다) 孫吏判은 號를 愚齋로 學問이 있었다. 晦齋가 愚齋에게 한 祭文에도

「誨我養我，不異己子，早識義方，皆舅之賜。」

하였으며 그 「資給遠通」한 데는 다 어디있는지 알 수 없으나 梁谷과 南溪朴世采는 慕齋金安國이 己卯士禍後 飄江에 退居할 때 晦齋와 退溪와 許草堂까지도 往來間難하였다 하였으나 그런 痕跡이 보인 바 없고 晦齋가 慕齋에게 한 祭文에도

「吾儕無似，幸示下僚，累承管咳，景仰高標。」

라고 下官으로서 上官에 對한 情分만을 말하였을 뿐, 오직 松堂朴英에게 한 挽詞에는

「愚魯蒙曾擊，乖離爰未親，德容時暫接，嘉訓聽難親，村墅逢殊款，山堂自有因。」

等 間難한 事實이 보인다. 松堂은 처음 武人으로서 新堂鄭鵬에게 배웠고 新堂은 寒時堂 門人으로서 松堂의 學問은 淵源이 있고 德望이 높았으므로 晦齋의 挽詞에도

「淵源元有自，英邁又超倫，……窮探極退妙，高步入眞純，風月浩無邊，乾坤品眼春，一源親浩渺，萬物總熙淳。」

極히 贊仰하였으나 오래 親炙하지는 않았음이 보인다. 어쨌든 晦齋는 退溪의 말씀한 대로 「天資近道」하여서

「乃於俗學之外，知有所謂爲己之學，而欲求之，雖未見有名門之師，從遊而受業，然，謂道備於吾性，而具說具在方冊，苟能篤志，無不得之理，於是，講明體段，用力於致知誠意之地。」

하여 二十七歲에 畏天・養心・敬身・改過・篤志의 元朝五箴을 지었으며, 忘機堂 無極太極說後의 글을 지었으니, 忘齋는 孫叔敏(晦齋의 外叔)・忘機堂은 卞浹輔로 두 분은 다 進士요, 다 相當한 나이였으며, 그들은 無極太極에 關한 論辯이 있었는데, 晦齋가 그 잘못됨을 指摘하여 說을 지었으니, 그 中 한 主要部分을 든다면

「原此理之所自來，雖極微妙，萬物萬化皆自此中流出，而實無形象之可指，若論工夫，則只中正仁義便是理會此事處，非是別有一段根原工夫，又在講學應事之外也，今忘機堂之說，則却却此等工夫，遂欲以無極太虛之體，作得吾心之主，使天地萬物朝宗於我，而運用無滯，是乃欲登天而不虛其無階，欲涉海而不量其無橋，其卒墜於虛遠之域，而無所得也必矣。」

하였고 또

「上天之載，無聲無臭，謂之寂可矣，然，其至寂之中，有所謂於穆不已者存焉，而化育流行，上下昭著，安得更着滅字於寂字之下，試以心言之，喜怒哀樂未發渾然在中者，此心本然之體，而謂之寂可也，及其感而遂通，則喜怒哀樂發皆中節，而本然之妙於是而流行也，先儒所謂此之寂，寂而感者此也，若寂而又滅，則枯木死灰而已，其得不至於滅天性乎。」

하였다. 이것을 본 忘機堂은 또 質問書를 내어 前後四次의 往復問答이 있었고 또 詩五首를 和韻한 것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의 鵝湖辯論이라 할 만한데 그 主旨를 要約하면 위의 글에 고인과 같이 그의 日用常行의 仁義中正을 두고 別個의 本源工夫를 찾아 佛家의 禪定頓悟처럼 下學을 버리고 곧 上達에 힘쓰며 또 寂滅로써 太虛를 說明하여 老氏의 無・釋氏의 空을 말하듯이 寂而感하는 것과 理의 不滅長存함을 모르며 또 太極의 위에 無極이란 別個의 存在를 認定하는 등 잘못을 是正한 것으로서 이것이 太極問辨이라. 정말 晦齋는 見道함이 일찍였다 할만 하다. 이에 退溪는

「其精詣之見獨得之妙，最在於與雪忘機書，其書闡吾道之本源，闢異端之邪說，貫精微徹上下，粹然一出於正，深玩其義，莫非有宋諸儒之緒餘，而其得於考亭者爲尤多。」

라고 絶贊을 하였다. 그리고 또 三十歲에 立箴을 지었으며 위의 五箴과 그 밖에도 임금에게 올린 疏章들은 다 人間修養의 진과 道學의 要諦를 道破하였으며 또 江界의 選謫中에서 大學章句補遺를 지었으니 이는 朱子가 舊大學原本에 缺落誤錯이 있다고 修整하고 補亡章을 지어 넣었는데 그것을 再修整하였음이라. 이 大學章句에 對하여서는 中國의 明朝諸儒中에서 朱子의 修整本에 異論을 하여 再修整한 이가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 '方孝孺의 것이 晦齋의 것과 많이 合致된다(晦齋當時에는 그 學說들이 들어오지 않았음이 無論이었다) 한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學界에서는 그 뒤 栗谷이 그 朱子學說에 離脫하였음을 攻擊하고 宜祖도 그 뜻으로써 文廟從祀를 請한 儒疏의 批答에 말하였다. 이에 西日 柳成龍은

「義理無窮，故先儒之論說，亦非一本，……亦可見其精思力索，不陷於俗儒口耳之陋。」

타고 論하였으며 또 그 뒤 正祖도 그러한 뜻으로써 序文을 하였다. 또 栗谷은 晦齋의 乙巳禍에 處한 일과 日常生活面에 對하여 攻擊하였으나 西厓는 辯解와 함께 極히 贊仰하였는데 이는 本論外이므로 그만 둔. 晦齋는 또 그 밖에 求仁錄・奉先雜儀 等 遺著가 있는데 求仁錄 또한 儒敎哲學에 關한 것으로써 晦齋는 實로 우리 儒敎哲學을 開拓하였다 할만 하다.

XXVII 退溪의 學問

退溪에 이르러 드디어 性理學의 蘊奧를 闡明하며 그 宗旨를 決定하여 儒敎哲學을 完成시켰다 하겠는데 退溪도 晦齋처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叔父 松齋堦에게 배웠으며 그 道學은 自得하였다 할만큼 天資粹美하였으며 또한 世道에 뜻을 두어 일찌기 進士試와 文科에 進登하여 三司의 清要에 周歷하였는데 河西金麟厚는 가장 그와 心交하여 贈詩를 하는데

「夫子嶺之秀，李杜文章王趙筆。」

의 글귀가 있었으며 錦湖林亨秀도

「靈川筆下碧琅玕，湖口高標雪月寒，揀箇時人誰相似，消癯宜並退溪看。」

可히 當時士類의 風致와 退溪의 物望을 追想할만 하다. 그러나 藝文檢閱로 되었을 때 權臣金安老에게 쫓겨 시골로 내려갔다가, 安老가 敗하자 다시 물러 벼슬길에 올랐으나 中宗末大小尹의 內爭으로 政界의 不安을 보고 高潔한 趣向을 가진 그는 榮進에 뜻이 적어 혹 召還을 입어도 立朝를 오래하지 않았더니, 中宗이 升遐하고 仁宗이 即位하자 明에 謁諫・請諡 兩表를 그에게 지어서 써서 보내게 하였더니, 明의 禮部官들이 그 文詞와 書法을 깊이 稱歎하였으매 仁宗이 듣고 嘉賞하였다. 그러나 또 고대 仁宗이 升遐하고 明宗이 即位하자 李崐・尹元衡 等이 乙巳大禍를 일으키매 그도 李崐의 構陷하는 名錄에 얹혀 官爵을 削奪 당하여 앞으로의 禍가 不測할만 하였더니, 李崐의 조카 校理元祿이 본디부터 退溪의 學行에 敬服하던 터라. 崐에게 이 사람을 밝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여 免함을 얻어 다시 除職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元祿도 물려서 귀양가고 士禍는 그치지 않아 그는 外除를 求하여 丹陽・豐基 等邑에 出補되어 治績이 드러났으며, 豐基에서는 紹修書院을 일으켰으나, 그 叔兄되는 溫溪李瀾 일찌기 大司憲으로써 李崐를 論駁하였더니, 이때 忠清監司로써 逮獄受刑하여 甲山으로 定配되어 가다가 道卒하였다. 이에 그는 宦情이 더욱

없어졌다. 이에 앞서 그 故鄉인 禮安의 陶山下 兎溪上에 養眞庵을 지어 兎溪를 退溪로
 처 이름하여 또 스스로 號하고, 혹 陶叟라고도 하여, 弟子를 가르치며 歸依하는 者 漸
 많아 이에 다시 寒棲庵을 짓고, 그 뒤 다시 陶山書堂 즉 隨雲精舍가 되었다. 저 같이 여
 러번 거듭된 禍에 無數한 선비들이 屠戮되었으니 眞正한 學問을 求하려는 青年들의 意
 慾은 그만큼 더욱 몰타듯 하여 京鄉을 莫論하고 뜻 있는 이는 다 몰려들어 다 退溪先
 生으로 끌렸다. 생각건대 선비가 나가서 道를 行하여 그 抱負를 펴지 못하고서 政界에
 머무는 것은 不義에 屈從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直道로써 많은 犧牲만 내어 國脉을 龜
 裂시킨 뿐이니 차라리 물리나 弟子들에게 道를 傳하여 後日을 期待하기만 못하다. 그것이
 退溪先生의 心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높아짐에 따라 朝廷에서는 잇달아 끌려
 올렸다. 혹 나아갔다가 곧 돌아오기도 하고 혹 나아가지 않기도 하였다. 위에 보인 바
 明宗의 晩年悔悟한 뒤 政治는 차차 맑아지고 선비를 소중히 여겨 그의 벼슬은 校理에서
 執義・應教・大司成・參議・參判・判書・提學・大提學으로 출몰 올랐으나 在職한 날은
 많지 않았으며, 明宗은 陶山을 그려 臥內에 屏風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宣祖 即位하자
 또 곧 右執成으로 끌려 올라와 大條의 疏를 올리고, 吏曹判書에 除授되었으나, 固辭하고
 다시 判中樞에 除授되었으나 또한 辭退하고 歸鄉하였다. 2번의 召命을 받고 처음 자꾸
 病辭하매 서울에 있었던 그 門人들은 모여서 이번만은 先生이 올라와 行道할 만하다고
 애달게 말하자 兎齋琴蘭秀는 「先生이 올라오시어도 (1) 後宮百數를 없애지 못하겠고,
 (2) 廐馬數百을 없애지 못하겠고, (3) 殿里干政을 막지 못하리니 쓸 곳 없다」고 말하였
 다. 이로써 退溪의 머물러 있지 않았음과 君主政治의 暗黑而汚 士禍 및 黨爭의 原由도
 追想되는 바라. 그러니 政治의 力量은 비록 未知數이나 當時社會情勢는 짐작되는 바며,
 그의 學者로서의 著述은 四十二歲되던 中宗七年壬子 朱子書節要를 編次하였고, 그 翌年
 啓蒙傳疑를 지었고, 또 그 翌年 宋季元明理學通錄을 編次하고, 또 그 明年 高峰奇大升과
 四七理氣의 論辯이 있었으니, 그 前年 工曹參判으로 서울에 있을 때 秋翫鄭之雲이 天命
 圖說을 지어서 보이는데, 秋翫은 그 前에 慕齋・思齋 兩先生門下에서 그 緒論을 듣고 하
 였다는데, 退溪는 그것에 改正을 加하였던 바, 그 中에

「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

한 文句로써 高峰은 質問하러 왔다.

「天命四端七情分屬理氣，雖析大抵，理與氣判而爲兩物，七情不出於理，而四端不乘於氣，諸君
 不能無病。」

말하였다. 退溪의 理氣兩元論的인 面에 疑難을 發한 것이었다. 이에 對하여 退溪는

「四端情也，七情情也，均是情也，何以有四七之異名耶，來喻所謂所就以言之者不同是也，蓋理之與氣，本相須以爲體，相待以爲用，固未有不理之氣，亦未有不氣之理，然，所就而言之不同，則亦不容無別。」

하이 理氣의 互發相須는 原則이지만은 만하는 지리에 따라서 全然區分이키 없은 수도 없음을 說明하였다. 論辯의 書信은 어리민 往復하였다. 그 뒤 다시 格物致知說에 若干의 修正을 加하고,

「理發而氣乘之，氣發而理隨之。」

라고 朱子說에 依하며, 또 朱子語類의

「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

의 말로써 證據대기도 하였는데, 그 往復文全部를 여기에 실지 못하나 高峰도 뒤에 깨달아 다시 退溪說에 좇아 四端七情說을 지어

「孟子論四端，以爲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充之，夫有是四端，而欲其擴而充之，則四端是理之發者，是固然矣，程子論七情，以爲情既絀而益蕩，其性慳矣，故覺者約其情，使合於中，則七情是氣之發者，不具然乎，以是觀之，四七之分屬理氣，自不須疑」

하였으매 退溪는 그 態度를 稱賞하여

「四七理氣之辨，明彥(高峰의 字)簡亦疑其說之誤，力加排抗，近在湖南寄書來，自言仔細參考，始知其非誤，因著總說後說二篇來，其言倏然一出於正，乃知其人眼目既高，不以先入爲主，而能超然獨得於昭曠之原如此。」

하였다. 中國의 二陸은 끝내 朱子와 合하지 못하였는데 高峰은 渙然相合하여 도리어 退溪學說을 羽翼하여 著說하였으니 그 坦蕩한 人格을 可히 엿볼 수 있으며 그 著說의 內容도

「其四七之辨，援引指摘，鋪張羅絡，浩浩汪洋，聘辯馳辭，如懸河潑海，不可測度。眞奇才也，眞益友也。」

이 같이 退溪는 感歎을 말지 않았다. 그 밖에 宗室鍾城令 號를 述坊이라 하는 이가 徐花潭에게 從遊하여서 心無體用說을 지어 靜庵金就驪를 通하여 退溪에게 就質하므로 退溪는 心無體用辨을 지었으니

「以寂感爲體用，本於大易，以動靜爲體用，本於戴記，以未發已發爲體用，本於了思，以情爲體用，本於孟子，皆心之體用也，蓋人之一心，雖彌六合亘古今貫幽明徹萬微，而其要不出乎此二字，……

今雖老之曰也，心固有體用，而探其本，則無體用也，程子曰，心一而已，有指體而言者，有指用而言者，今既指其有體用者爲心，則說心已無餘矣，安得別有無體用之心爲之本，而在心之前也。」

大略 이러한 주장은 있으며 그리고 또 一齋李恒의 所論인 「情不可置氣圈中說」에 對한 論辨도 있었다.

XXVIII 儒學界에서의 退溪의 地位와 當時社會情勢

退溪의 同時에 위에 引은 河西・一齋 및 南冥曹植・大谷成誼・東洲成惇元 等 많은 隱逸學者가 있어 河西・一齋를 또한 儒教哲學인 心性理氣에 關한 論說이 있었으나 當時에서나 後世에지나 退溪를 가장 宗匠으로・集大成으로 推仰하였다. 이 間이 많은 鉅儒가輩出하여 哲學界에 많은 造詣가 있게 되었을은 아마 長期間의 成臣敎權・士禍의 繼續・政界의 不安 等 社會情勢가 有爲의 人士들로 하여금 政界進出에 斷念하고 山林에서 學究에 專精하게끔 된 까닭이었으리라.